



수도권 이전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분석

배진한·김기희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수도권 이전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분석

배진한 · 김기희

연구진

연구책임
공동연구

- 배진한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기희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서 문

최근 한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위 '고용없는 성장'의 상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일자리창출정책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로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지역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따라서 그들은 유력한 기업들의 지역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기업의 유치가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다고 하여도 지금까지 어떠한 기업들이 유치되고 그 유치의 효과가 어떠한지는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업유치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지역경제의 발전전략으로서의 산업정책과 함께 효과적인 기업유치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최근 수년간의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정책의 내용과 실적을 파악하고 또한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정책함의들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대전광역시의 기업유치를 통한 적절한 산업정책과 일자리창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가 대전광역시의 기업유치활동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성실히 연구에 임해 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배진한 교수와 본 연구에 도움을 준 대전광역시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1. 11.

대전발전연구원장 이 창 기

요약 및 정책건의

대전광역시 사업체들은 빠른 증가속도와 상대적 대형화추세, 그리고 지식기반서비스업들에 특화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지역의 투자환경 또는 기업환경은 기존 연구들에서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입지계수가 1보다 높고 성장속도가 전국평균보다 높은 고성장·고집적 산업들은 대전지역의 산업경쟁력 수준을 나타내는 산업들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들 산업에는 연구개발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들과 음료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 지식기반제조업들이 포함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전 사업체 실태분석에서 우리는 수도권 사업체들의 이전이 유성구 등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또한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기존의 특화도가 높은 산업들에 집중됨에 따라 대전지역의 특화산업들의 산업집적을 촉진하고 사업체 대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 사업체들의 대부분이 이전 후 종업원수가 유지 또는 증가하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이루어진 이전 사업체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첫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제3·4공단이 위치하는 유성구에 이전한 사업체의 경우 종업원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된다는 점, 둘째, 이전연륜이 종업원수 증가에 음의 효과를 유의하게 미친다는 점, 셋째, 기업규모면에서 소기업과 중기업의 경우 종업원수 증가가 유의하게 발생한다는 점, 넷째, 업종으로 볼 때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체들의 경우는 종업원수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도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본 연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방법에 의거 이전 사업체

들의 생산활동이 유발하는 대전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계측을 시도하였는데 그 크기는 당해 사업체들이 직접 생산해내는 산출액 6,186억원과 이로부터 유발되는 산출액 중 대전지역 귀착분 608억원의 합계 6,794억원 정도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된 것은 유발효과의 86.1%가 대전지역외로 이출(移出)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연간 기준으로 2,421억원의 직·간접 소득효과가 발생하고 이중 280억원 정도는 간접적으로 유발된 소득효과였으며 일자리창출은 843개 유발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대전광역시의 효과적인 기업유치정책을 위해서 몇 가지 정책제안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대전지역의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독자적 지역발전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클러스터 의사결정체제를 형성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첫째 대전광역시의 연구개발기능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집적, 그리고 지리적 이점 등 지역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 홍보함으로써 일정규모에 이르기까지 산업집적을 이끌어내는 노력, 둘째, 유성구지역에 다양한 맞춤형 산업용지를 충분히 마련하는 노력, 셋째, 유치기업의 규모를 소기업과 중기업에 초점을 두고 산업용지의 공급에도 이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노력, 넷째, 산업집적과 효과적인 네트워크가 적절하게 융합된 산업클러스터의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지역내 네트워크의 구축 노력, 다섯째, 대전지역의 특성을 살려 연구개발분위기를 더욱 강화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여섯째, 유치기업을 포함하여 산업클러스터에 지역의 우수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력수급 개선을 위한 인프라구축 노력, 일곱째, 고졸 청년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인력개발 프로그램의 운영, 여덟째, 수준 높은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의료, 쇼핑, 문화, 그리고 사회복지인프라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노력 등을 제안하였다.

대전광역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소득 증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방안으로 기업유치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각 지역들 사이에 기업유치를 위한 지나친 보조금 지급경쟁은 국민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비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뿐일 수 있으므로 그 보다는 지역의 입지적 특성에 기초한 산업집적과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보다 우월한 방안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클러스터 형성과 기업환경 개선 또는 기업

유치 영향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 자체적으로 수준 높은 연구 및 기술개발 역량 확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 등을 밀접하게 연결하고 사업화하는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 도시지역의 지속적 발전과 성장의 길은 경쟁력 있는 제조업의 확보와 아울러 단순한 서비스산업화보다는 특성화된 산업들과 밀착·연관되는 지식서비스 산업화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산업들의 집적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역동적인 기업가정신의 발휘와 창업이 지역클러스터 형성에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초투자환경(금융 이용가능성, 노동력의 질과 노사관계,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가격과 토지 이용가능성 등)과 인프라환경(항만, 공항, 물류인프라, 의료 및 교육 인력, 주민의 기업에 대한 태도, 준조세부담, 클러스터 발전 정도, 소비자 물가 등)의 개선과 아울러 지방정부의 정책과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헌신적인 행정서비스 등 기업성장과 투자에 우호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다.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4
1. 연구의 방법	4
2. 연구의 구성	5
제2장 대전광역시 경제와 사업체 현황	9
제1절 대전광역시 경제 현황	9
1. 대전의 인구, 산업생산구조 및 취업구조	9
2. 산업별 GRDP와 취업자수의 전국점유율 추이	11
제2절 대전광역시 사업체 현황	14
1. 대전광역시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14
2. 대전광역시 산업별·기업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17
제3절 대전광역시의 산업경쟁력	23
1.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계수	23
2. 대전광역시 산업경쟁력	28
제3장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정책의 추진	35
제1절 지역의 기업유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과 제도	35
1. 지역 기업유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	35
2. 기업유치 지원제도	38
제2절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정책 추진성과 분석	42
1. 2010년 기업유치 성과	42
2. 2011년 기업유치 목표	44

3. 수도권 기업유치 성과와 이전 사업체들의 실태	45
4. 수도권 기업유치 성공요인 분석과 시사점	50
5. 수도권 기업유치 영향요인 추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52
제4장 수도권 기업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계측과 분석	57
제1절 산업별 생산활동의 파급효과 계측기법	57
1. 한국은행이 제안하는 파급효과 계측방법	58
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파급효과 계측방법	60
3. 산출변화가 일어나는 당해 산업에 산출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의 파급효과 계측방법	64
제2절 수도권 기업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계측결과 분석	68
1. 대전지역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	68
2. 수도권 기업유치의 산출효과, 소득효과 및 고용효과	71
제5장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77
제1절 무엇이 필요한가?	77
제2절 기업유치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80
1. 기업유치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체제의 구축	80
2. 인력, 자원 등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유치 전략 수립 필요	81
제6장 요약 및 결론	87
참고문헌	91
부록 : 설문지	95

* 표 목 차 *

<표 2-1> 대전의 인구구조	9
<표 2-2> 대전의 산업 생산구조(2005년 가격기준의 GRDP)	10
<표 2-3> 대전의 취업구조	11
<표 2-4> 대전의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14
<표 2-5> 전국과 대전의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구성 추이	15
<표 2-6> 대전의 산업별·기업규모별(종사자수 기준) 사업체수(2009)	18
<표 2-7> 대전의 산업별·기업규모별 종사자수(2009)	19
<표 2-8>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계수 추이	24
<표 2-9> 대전광역시 특화산업 최근 입지계수 추이	25
<표 2-10> 대전광역시 산업(중분류) 유형화(종사자수 기준)	27
<표 2-11> 표준편차 방식을 이용한 기업투자환경지수 분석결과 : 통합자료	28
<표 3-1> 기업 지방이전 및 고용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 현황	39
<표 3-2> 수도권 기업 대전광역시 이전의 경우 보조금 지원제도 현황	39
<표 3-3> 대전광역시의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 개요	41
<표 3-4> 2010년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성과	42
<표 3-5> 이전 예정 기업과 MOU 체결 내용	43
<표 3-6> 2011년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목표	44
<표 3-7> 조사된 이전 사업체들의 산업별 구성	45
<표 3-8> 이전 사업체의 규모별 구성	46
<표 3-9> 이전 사업체의 자치구별 구성	47
<표 3-10> 이전 사업체의 이전연도별 구성	48
<표 3-11> 이전 사업체의 이전 후(2011년) 종업원수와 매출액 증감 상황	48
<표 3-12> 이전 사업체들이 생산하는 산업별 부가가치 및 산출액 구성(2010년)	49
<표 3-13> 대전지역으로 이전한 이유	51
<표 3-14> 대전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상태	51
<표 3-15>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요약통계	52
<표 3-16> 유치 사업체 대전 이전 후 종업원수 증가에 대한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53

<표 3-17> 유치기업 대전 이전 후 매출액 증가에 대한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54
<표 4-1> 건설부문을 외생화한 산업연관표(3부문의 경우)	59
<표 4-2> 대전지역 지역산업연관표(생산자가격 평가표)(다음 표에 계속)	69
<표 4-2> 대전지역 지역산업연관표(생산자가격 평가표)(앞의 표에서 계속)	70
<표 4-3> 이전 사업체의 생산활동에 의해 유발된 직·간접 유발효과	71
<표 4-4> ΔX_p^o 로부터 추정된 벡터 ΔF_p^{od}	72
<표 4-5> 이전 사업체 생산활동의 대전지역 내 소득(부가가치)효과와 고용효과	72
<표 5-1>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정책 평가	77
<표 5-2> 향후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전광역시의 기업유치정책 필요성 평가	78
<표 5-3> 이전기업들의 채용희망 종업원수	82
<표 5-4> 최근 대전지역 청년층 학력별 신규인력 공급 구성비 추이	83

* 그림 목 차 *

<그림 2-1> 대전의 산업별 GRDP의 전국점유율 추이	12
<그림 2-2> 대전의 산업별 취업자수의 전국점유율 추이	13
<그림 2-3> 대전광역시 규모별 사업체수 증감 추이	16
<그림 2-4> 대전광역시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수 증감 추이	17
<그림 2-5> 대전광역시 종업원수 규모별 일자리 창출 추이	20
<그림 2-6> 전국 종업원수 규모별 일자리 창출 추이	22
<그림 2-7> 대전광역시 기업규모별 종업원수 구성비 추이	22
<그림 2-8> 대전광역시 산업별 GRDP 광역시 비중 추이	29
<그림 2-9> 대전광역시 산업별 취업자 광역시 비중 추이	30
<그림 2-10> 대전광역시 규모별 사업체수 광역시 비중 추이	31
<그림 2-11> 대전광역시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수 광역시 비중 추이	32
<그림 4-1> ΔX_p^o 와 ΔF_p^{od} 사이의 관계	67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최근 한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위 '고용없는 성장'의 상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일자리창출정책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로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지역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따라서 그들은 유력한 기업들의 지역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기업의 유치가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다고 하여도 지금까지 어떠한 기업들이 유치되고 그 유치의 효과가 어떠한지는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다. 이러한 기업유치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지역경제의 발전전략으로서의 산업정책과 함께 효과적인 기업유치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2. 연구목적

그리하여 본 연구는 최근 수년간의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정책의 내용과 실적을 파악하고 또한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정책함의들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대전광역시의 기업유치를 통한 적절한 산업정책과 일자리창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이론적으로 기업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론들과 이전기업들이 대전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파급효과 분석방법에 관한 문헌조사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수도권에서 대전지역으로 이전하여온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경영상황을 분석하고 이들 이전기업들이 대전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도권으로부터 대전광역시로 이전하여온 16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현황, 인력 및 근무여건, 이전 이후 기업경영 평가 및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정책 평가 등 항목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이들 기업의 이전이 대전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파급효과 분석의 초점은 생산효과, 소득(부가가치)효과 고용효과 등의 파악에 두고 이에 기초하여 기업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함의도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앞으로 대전광역시가 추진해나가야 할 기업유치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시도한다.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11년 10월 4일 ~ 10월 14일 (토·일 제외 9일간)
- 조사대상 :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수도권으로부터 대전광역시로 이전하여 온 167개 사업체 중 113개 사업체(조사비율 67.7%)
- 조사방법 : 전문 조사원들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조사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제2장에서 대전지역의 경제와 사업체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 이론적 측면으로서 기업이전 또는 기업유치에 영향줄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의 도출에 주목하면서 이어서 대전광역시의 기업유치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 분석결과로서 이들 이전기업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앞장들의 논의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정책함의와 정책제안들을 제시하며 제6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도출한다.

제 2 장

대전광역시 경제와 사업체 현황

제1절 대전광역시 경제 현황

제2절 대전광역시 사업체 현황

제3절 대전광역시의 산업경쟁력

제 2 장 대전광역시 경제와 사업체 현황

제1절 대전광역시 경제 현황

1. 대전의 인구, 산업생산구조 및 취업구조

대전광역시의 경제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인구와 경제구조, 그리고 취업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1> 대전의 인구구조

구분		센서스 실제치			장래인구 추계치		
		2000	2005	2010	2015	2020	
총인구(명)	전 국	46,136,101	47,278,951	48,580,293	49,277,094	49,325,689	
	대 전	1,368,207	1,442,856	1,501,859	1,554,726	1,582,790	
연평균 인구증가율(%)	전 국	0.68	0.49	0.54	0.29	0.02	
	대 전	1.47	1.07	0.80	0.69	0.36	
성비	전 국	101.4	101.0	100.8	100.6	100.1	
	대 전	102.6	101.5	101.2	100.6	99.9	
인구 구성 (%)	전국	0-14세	21.1	19.2	16.2	13.7	12.4
		15-64세	71.7	71.7	72.9	73.4	72.0
		65세 이상	7.2	9.1	11.0	12.9	15.6
	대전	0-14세	22.3	20.4	17.5	15.2	14.0
		15-64세	72.3	72.7	73.9	74.3	72.9
		65세 이상	5.4	6.9	8.5	10.4	13.2
노령화지수	전국	34.3	47.3	67.7	94.8	125.9	
	대전	24.1	33.6	48.5	68.7	94.4	

주 :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해당 연도 이전 5년간의 연(기하)평균 인구증가율을 의미함. 성비, 인구구성(%), 노령화지수의 경우는 2000~2010년의 자료도 장래인구 추계치 기준 자료인데, 여기서 성비는 여성인구 100명 당 남성인구의 수를 나타내며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를 나타냄.

자료 : 통계청, KOSIS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그동안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표 2-1> 참조). 향후에도 전국보다는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는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인구의 연령구성도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노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전국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다.

<표 2-2> 대전의 산업 생산구조(2005년 가격기준의 GRDP)

(구성비, %)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1.6	0.8	0.6	0.3	0.3	0.2	0.2	0.2	0.1
광업	0.1	0.1	0.0	0.0	0.0	0.0	0.0	0.0	0.0
제조업	24.6	18.7	19.7	15.3	14.2	14.8	15.9	15.8	17.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8	1.1	2.0	1.7	1.8	1.8	0.7	1.3	1.5
건설업	17.6	13.6	8.3	8.3	7.8	6.4	6.0	6.0	6.4
도매 및 소매업	12.2	13.2	11.1	10.6	10.6	11.0	10.8	10.1	10.2
운수업	4.1	4.4	4.2	3.7	3.8	3.5	3.4	3.0	3.1
숙박 및 음식점업	2.8	2.3	2.7	2.6	2.7	2.8	2.7	2.6	2.4
정보 및 통신업	2.3	2.5	3.3	3.3	3.3	3.1	2.9	2.8	2.7
금융 및 보험업	3.9	5.4	6.3	6.9	6.7	6.8	6.7	6.4	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4.6	9.8	11.0	9.6	9.7	9.6	9.7	9.6	9.0
사업서비스업	7.1	8.2	8.9	10.5	10.9	11.1	11.7	12.2	11.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1	7.0	8.0	9.5	9.9	10.0	10.0	10.2	9.7
교육서비스업	6.9	7.3	7.4	9.3	9.6	9.8	10.0	9.9	9.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8	2.4	3.1	4.4	4.8	5.1	5.3	5.8	5.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8	0.9	0.9	1.2	1.2	1.2	1.2	1.2	1.2
기타서비스업	2.6	2.5	2.6	2.6	2.7	2.7	2.7	2.9	2.8

<표 2-2>에 따르면 대전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비중이 그동안 빠르게 하락하다가 최근 다시 약간 상승을 보이며 서비스업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그동안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금

용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그리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의 생산활동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왔다.

또한 취업구조 역시 서비스업부문의 비중이 높아져 왔다.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대신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의 취업비중이 빠르게 늘었다. 제조업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다(<표 2-3> 참조).

<표 2-3> 대전의 취업구조

(구성비, %)

산업분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업, 임업 및 어업	1.54	1.70	1.66	1.47	1.15	1.15	1.00	1.26
광공업	12.17	12.23	11.80	11.32	11.64	12.18	11.97	12.06
건설업	9.86	9.13	9.23	8.68	8.48	8.60	8.83	7.85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9.12	27.09	25.26	25.29	25.00	23.35	23.79	23.14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34.21	35.91	38.58	40.29	41.09	41.69	41.60	43.20
전기·운수·통신·금융	13.10	14.09	13.46	12.94	12.79	12.89	12.68	12.4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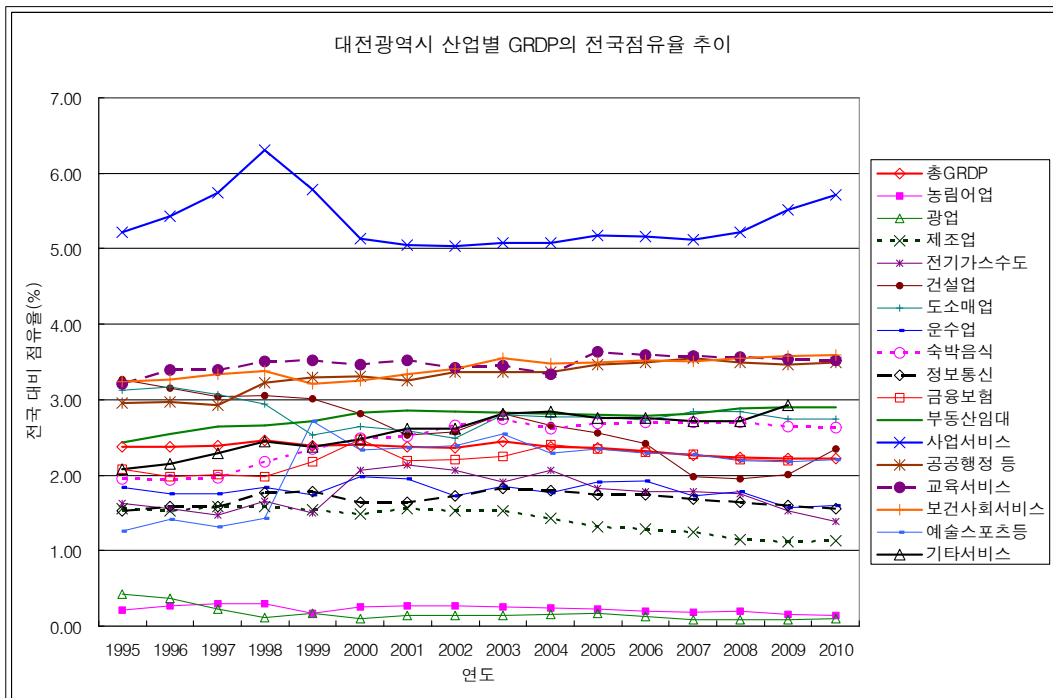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2. 산업별 GRDP와 취업자수의 전국점유율 추이

대전지역 경제의 특징을 파악하자면 산업들의 전국 점유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1>에 따르면 전산업 GRDP의 전국점유율은 약 2.2% 수준인데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5.7%에 이르고 있어서 대전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발전 등에 힘입어 사업서비스업에 크게 특화된 도시지역으로 이해된다. 그 외에도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행정·국방 등의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국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보다는 낮지만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도 상대

적으로 높은 전국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대신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국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그 추세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

<그림 2-1> 대전의 산업별 GRDP의 전국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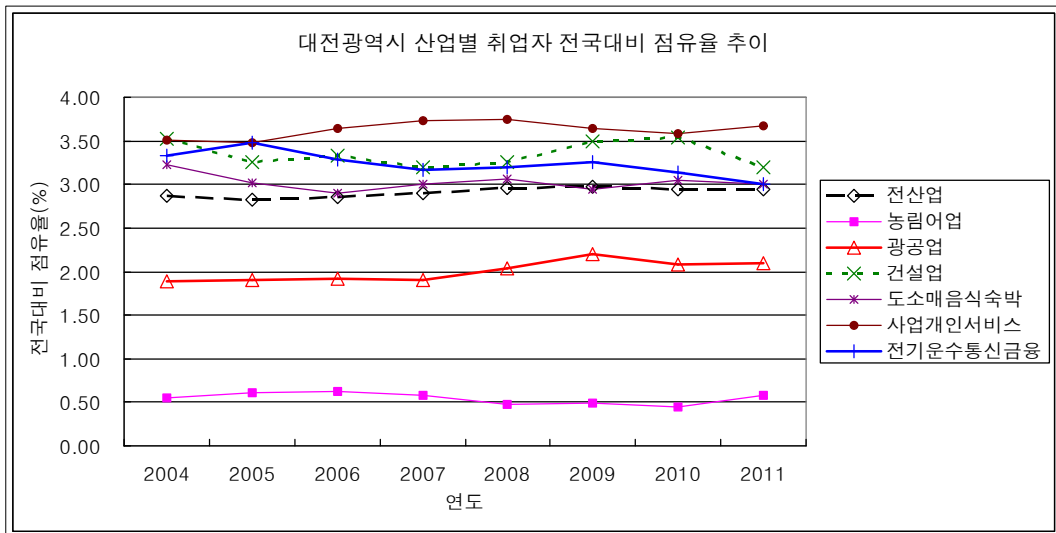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에서 작성.

<그림 2-2>에 의하면 대전의 취업자수의 전국점유율은 약 2.9% 수준인데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부문은 3.7% 수준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고 건설업의 취업자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점이 발견된다. 전기·운수·통신·금융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최근 하락하여 전산업 평균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광공업 취업자의 전국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최근 약간 상승한 모습이다.

그런데 GRDP기준으로는 제조업의 점유율이 하락추세였는데 취업자기준으로는 점유율이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들이 영세하거나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다음 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2> 대전의 산업별 취업자수의 전국점유율 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에서 작성.

제2절 대전광역시 사업체 현황

1. 대전광역시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대전이 2009년 현재 총사업체수는 93,176개로 이 중에서 300인 미만 사업체수는 총 93,061개 사업체로 전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300인 미만 사업체 중에서 1~9인 사업체수는 86,787개 사업체로 전체의 93.1%를 차지하고 영세규모의 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사업체수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00인 미만사업체의 구성비는 99.9%로 불변이지만, 1~9명 사업체수는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2-4> 대전의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명,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영세기업(1~9명)	85,205	86,376	86,787	186,766	190,638	191,985
소기업(10~49명)	4,925	5,106	5,243	93,069	98,277	100,592
중기업(50~299명)	874	966	1,031	85,481	94,976	100,085
대기업(300명 이상)	93	100	115	64,316	66,966	75,839
합계	91,097	92,548	93,176	429,632	450,857	468,501
	구 성 비					
영세기업(1~9명)	93.5	93.3	93.1	43.5	42.3	41.0
소기업(10~49명)	5.4	5.5	5.6	21.7	21.8	21.5
중기업(50~299명)	1.0	1.1	1.2	19.8	21.0	21.3
대기업(300명 이상)	0.1	0.1	0.1	15.0	14.9	16.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KOSIS에서 작성.

2009년 현재 사업체 총종사자수는 468,501명인데 이 중에서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종사자는 392,662명으로 전체의 83.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300인 미만 사업체 중에서 1~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종사자수는 191,985명으로 전체의 41.0%를 차지하고 있어, 규모별 종사자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총근로자의 41%가 1~9인 규모의 영세한 소규모 사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추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해보면 1990년대에는 대기업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영세기업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2009년에는 영세기업의 비중이 오히려 전국평균에 비해 낮아지고 대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표 2-5> 참조). 말하자면 대전광역시의 경우 최근 기업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표 2-5> 전국과 대전의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구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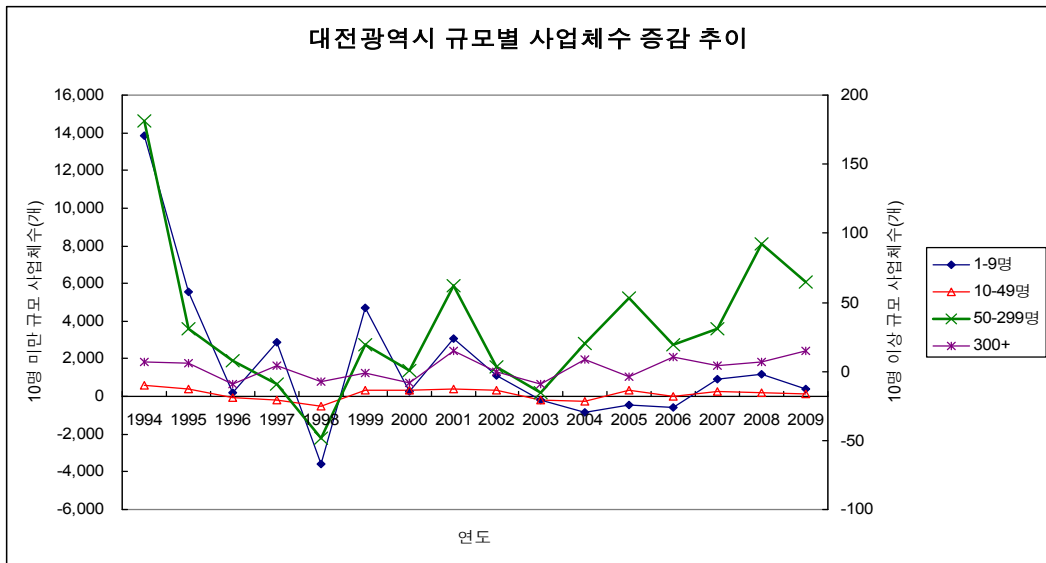
(종사자수 구성비, %)

구 분	1993		2000		2009		
	전국	대전	전국	대전	전국	대전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영세기업	1 - 4명	28.9	33.2	34.2	36.1	29.0	29.4
	5 - 9명	10.1	10.2	11.4	10.8	12.1	11.6
소기업	10 - 19명	8.8	8.9	10.5	9.1	10.7	9.4
	20 - 49명	12.9	11.6	13.3	11.6	13.4	12.1
중기업	50 - 99명	8.3	7.8	8.9	9.1	10.1	10.2
	100 - 299명	10.0	9.6	9.7	9.3	10.9	11.2
대기업	300 - 499명	3.8	5.5	3.3	3.0	3.7	5.1
	500 - 999명	4.8	5.7	3.5	5.2	3.9	5.1
	1000명이상	12.4	7.6	5.2	5.8	6.1	6.0

자료 : 통계청, KOSIS.

매년의 대전지역 사업체수 규모별 증감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 2-3>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서는 중기업(종사자수 50~299인 규모)의 증가가 훨씬 괄목해 졌으며 대기업(300인 이상 규모)의 증가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소기업(10~49인 규모)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림 2-3> 대전광역시 규모별 사업체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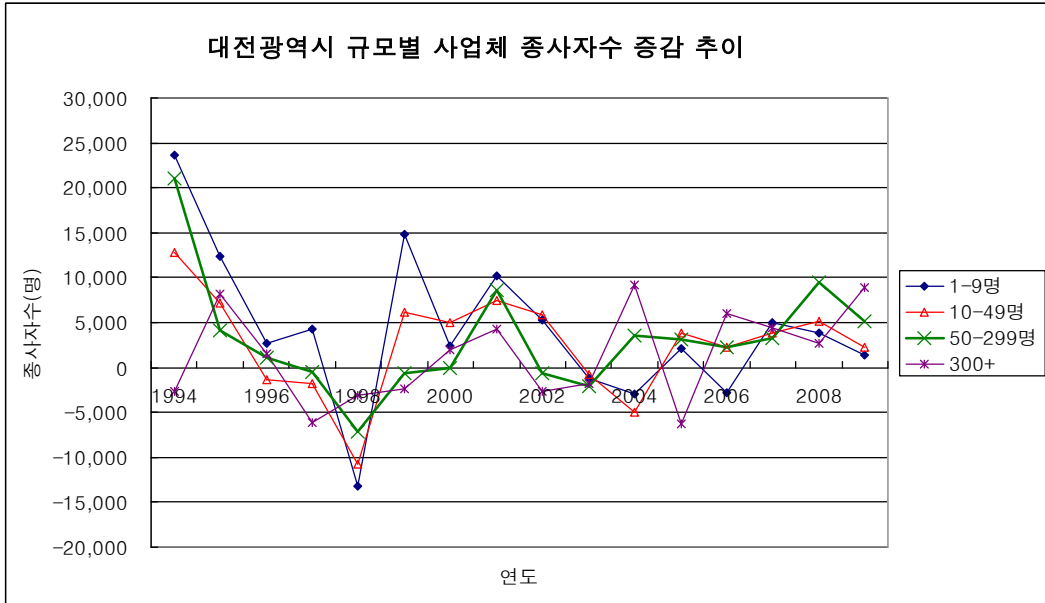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에서 작성

<그림 2-4>에 따를 때 매년의 대전지역 사업체 종사자수 규모별 증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대기업 종사자수의 증감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대전광역시의 경우 최근 중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종사자수도 뚜렷하게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까지는 영세기업(1-9인 규모)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변화가 대전지역 경제활동 변화의 주역이었지만 이러한 추세가 2000년대에는 크게 약화된 것이다.

<그림 2-4> 대전광역시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수 증감 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에서 작성

2. 대전광역시 산업별 ·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대전의 산업별 ·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현황을 보면, 2009년 현재 규모 전체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24,773개 업체로 전체의 26.6%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이어서 숙박 및 음식점업 17,153개 업체로 전체의 18.4%, 협회·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11,473개 업체로 전체의 12.3%, 운수업이 10,554개 업체로 전체의 11.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결국 대전의 주요 사업체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운수업 등 주로 전통적인 서비스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조업 소속 사업체는 6,295개로 전체의 6.8%에 불과하면서 지식기반경제의 기초가 되는 서비스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2.1%, 교육서비스

업 5.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은 1.1%,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서비스업은 1.1%, 그리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은 0.7% 등으로 나타나 아직 이 부문의 비중은 을 차지하고 있다.

<표 2-6> 대전의 산업별·기업규모별(종사자수 기준) 사업체수(2009)

(단위 : 명, %)

구 분	영세기업 (1~9)	소기업 (10~49)	중기업 (50~299)	대기업 (300이상)	합계	구성비
전산업 (구성비)	86,787 (93.1)	5,243 (5.6)	1,031 (1.1)	115 (0.1)	93,176 (100.0)	100.0
농업, 임업, 어업	4	1	2	0	7	0.008
광업	4	1	0	0	5	0.005
제조업	5,575	587	120	13	6,295	6.8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7	7	8	2	24	0.03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2	28	5	1	96	0.1
건설업	2,132	453	67	6	2,658	2.9
도매, 소매업	23,822	867	81	3	24,773	26.6
운수업	10,323	144	83	4	10,554	11.3
숙박, 음식점업	16,775	362	16	0	17,153	18.4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462	174	41	0	677	0.7
금융, 보험업	593	542	66	1	1,202	1.3
부동산업, 임대업	3,026	293	18	3	3,340	3.6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1,628	247	60	20	1,955	2.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771	177	93	22	1,063	1.1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31	123	59	24	237	0.3
교육서비스업	4,427	424	206	9	5,066	5.4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2,865	479	69	7	3,420	3.7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3,108	55	15	0	3,178	3.4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11,172	279	22	0	11,473	12.3

자료 : 통계청, KOSIS에서 작성.

한편 대전의 산업별·기업규모별 종사자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현재 규모 전체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74,460명으로 전체의 15.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고, 이어서 숙박 및 음식점업이 48,929명으로 전체의 10.4%를 차지하여 역시 전통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2-7> 대전의 산업별·기업규모별 종사자수(2009)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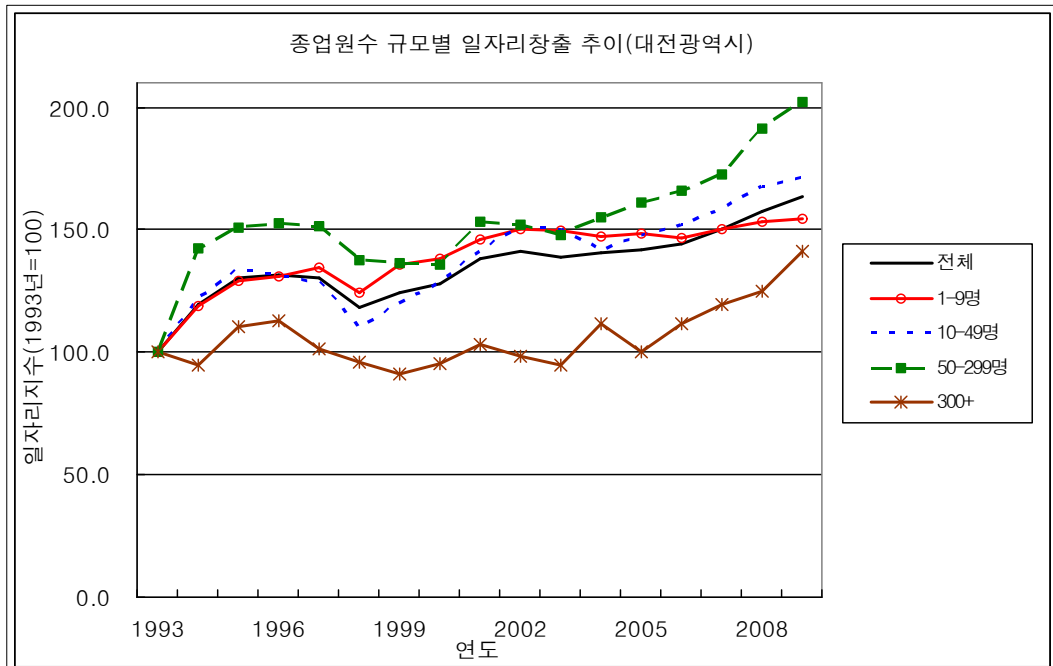
구 분	영세기업 (1~9)	소기업 (10~49)	중기업 (50~299)	대기업 (300이상)	합계	구성비
전산업 (구성비)	191,985 (41.0)	100,592 (21.5)	100,085 (21.4)	75,839 (16.2)	468,501 (100.0)	100.0
농업, 임업, 어업	19	10	309	0	338	0.07
광업	12	12	0	0	24	0.005
제조업	14,700	11,693	13,194	8,231	47,818	10.2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39	192	681	1,447	2,359	0.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268	562	440	399	1,669	0.4
건설업	6,898	8,182	6,765	3,313	25,158	5.4
도매, 소매업	51,061	14,705	7,745	949	74,460	15.9
운수업	11,617	3,615	7,990	2,024	25,246	5.4
숙박, 음식점업	41,405	5,963	1,561	0	48,929	10.4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1,766	3,543	4,334	0	9,643	2.1
금융, 보험업	2,962	11,085	5,712	404	20,163	4.3
부동산업, 임대업	6,109	5,634	1,360	1,097	14,200	3.0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5,624	4,441	7,691	14,014	31,770	6.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2,117	4,039	11,181	10,515	27,852	5.9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132	2,764	6,725	18,801	28,422	6.1
교육서비스업	10,657	9,633	15,776	8,065	44,131	9.4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12,010	8,300	5,741	6,580	32,631	7.0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5,771	1,159	1,262	0	8,192	1.7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18,818	5,060	1,618	0	25,496	5.4

자료 : 통계청, KOSIS에서 작성.

제조업에서는 47,818명이 종사하여 전체의 10.2%를 차지하고 있고,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은 교육서비스업 9.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0%,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은 6.8%,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6.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5.9%의 순서로 구성비가 높다.

기업규모별로는 전산업의 경우 역시 영세기업 규모의 종사자가 가장 많고, 이어서 소기업 규모, 중기업 규모, 그리고 종사자수 300인 이상인 대기업 규모의 순으로 종사자가 분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영세기업 규모의 종사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 주로 전통적인 서비스업 분야로 나타났고, 300인 이상 규모의 종사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주로 대형 사업체로 이루어진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전문·과학·기술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부분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5> 대전광역시 종업원수 규모별 일자리 창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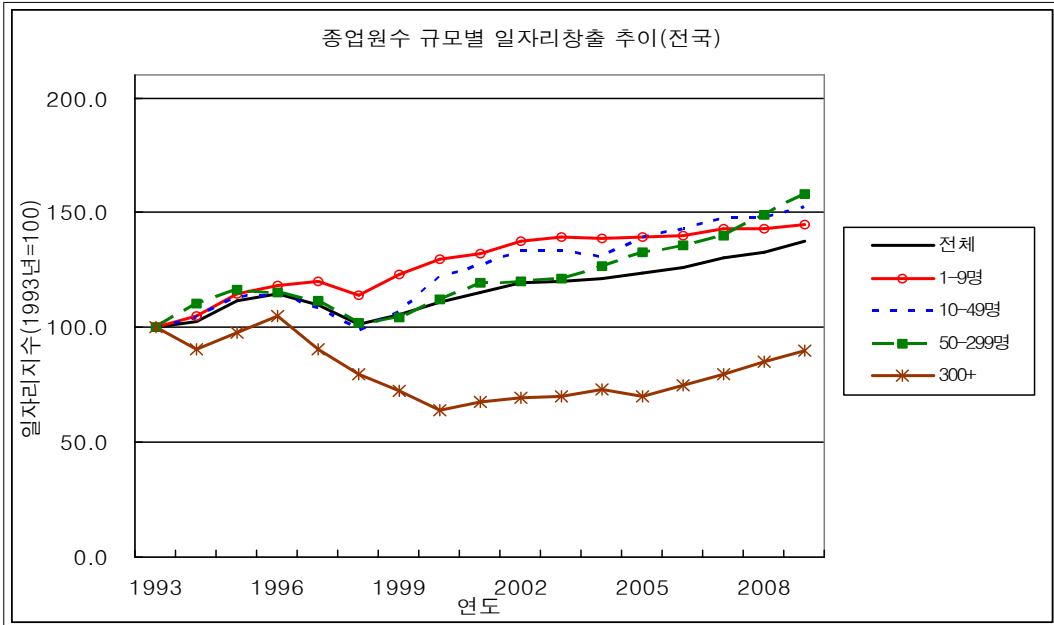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에서 작성.

이러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일자리 창출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최근 대전지역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체들이 일자리창출에 많은 기여를 해왔는지 알 수 있다. <그림 2-5>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종사자수 50~299인 규모의 중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크게 증가하여 왔음을 잘 알 수 있다. 10~49인 규모의 소기업도 전체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증가시켜 왔으며 2005년 이후에는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 영세기업들만이 정체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주로 영세기업형태로 존재하여 왔던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등의 성장이 정체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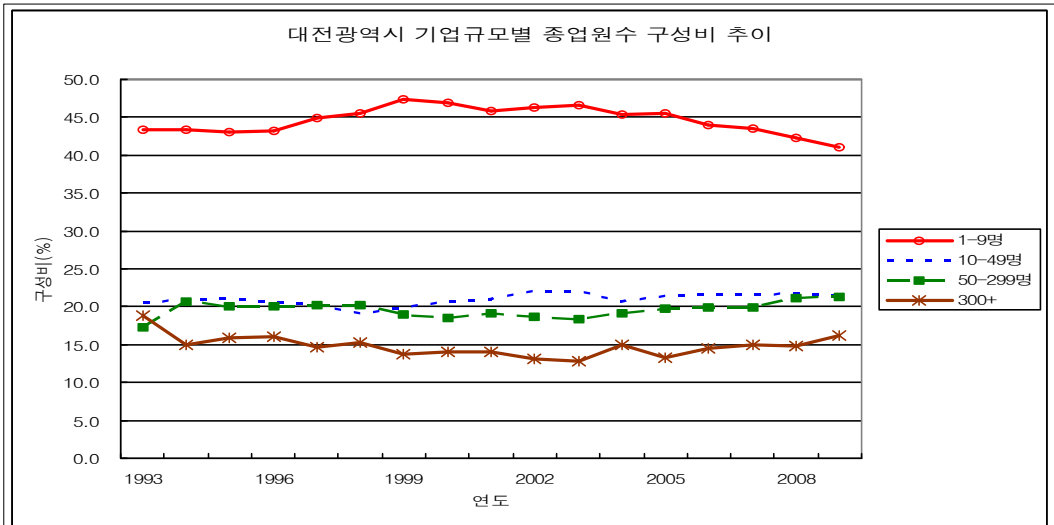
그런데 이를 전국의 추세와 비교해보면 다소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는 이 영세기업부문도 일자리 창출에 꾸준히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대전광역시의 경우보다 일자리창출의 속도가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이 파악된다. 전국적으로는 소기업규모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최근 다소 정체되는 모습이다. 그리하여 <그림 2-7>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의 경우 영세기업 종사자수 비중은 최근 매우 빠르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대전지역에서 특별히 영세기업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탓이라기보다는 중기업과 대기업의 성장이 빨라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2-6> 전국 종업원수 규모별 일자리 창출 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에서 작성.

<그림 2-7> 대전광역시 기업규모별 종업원수 구성비 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에서 작성.

제3절 대전광역시의 산업경쟁력

앞 절에서 우리는 대전광역시 사업체들의 빠른 증가속도와 상대적 대형화추세, 그리고 지식기반서비스업들의 성장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대전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산업경쟁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 지역의 산업경쟁력은 지역의 경제성장과 아울러 기업유치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1.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계수

산업경쟁력 결과의 한 측면으로서 대전지역이 어떤 산업에 특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유용하다. 우선 대분류 산업기준으로 대전지역의 최근 산업입지계수(location quotient)¹⁾ 추이를 살펴본 것이 <표 2-8>이다. 사업체기준으로 볼 때 대전지역은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에 특화하고 있으며, 종사자수기준으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에 특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이는 어떤 지역의 산업(예컨대 i 산업)이 전국의 해당 산업(i 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특정 지역 i 산업의 취업자수(물론 사업체수, 생산액 등을 사용할 수도 있음)가 그 지역 전체 전산업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국 i 산업의 취업자수가 전국 전산업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값으로 구해진다. 그 값이 1보다 큰 산업들이 존재한다면 그 i 산업은 해당 지역에서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해진다.

<표 2-8>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계수 추이

산 업 분 류	사업체수 기준			종사자수 기준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0.22	0.12	0.11	0.42	0.39	0.41
광업 (05 ~ 08)	0.06	0.06	0.10	0.05	0.07	0.05
제조업 (10 ~ 33)	0.69	0.69	0.69	0.51	0.51	0.5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 ~ 36)	0.69	0.57	0.58	1.11	1.14	1.2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 39)	0.64	0.67	0.67	0.93	0.92	0.91
건설업 (41 ~ 42)	0.95	0.98	0.99	0.83	0.90	1.01
도매 및 소매업 (45~47)	1.04	1.02	1.02	1.09	1.05	1.02
운수업 (49~52)	1.01	1.09	1.08	1.03	1.00	0.93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0.99	0.97	0.97	1.03	1.01	1.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 63)	0.97	1.00	0.99	0.81	0.91	0.81
금융 및 보험업 (64 ~ 66)	1.10	1.10	1.11	1.10	1.13	1.06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 69)	0.97	0.94	0.94	1.05	1.11	1.1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 73)	1.01	1.02	1.02	1.64	1.55	1.5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 75)	1.09	1.12	1.15	1.26	1.39	1.4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0.75	0.72	0.71	1.48	1.43	1.55
교육 서비스업(85)	1.12	1.10	1.10	1.32	1.24	1.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1.22	1.20	1.22	1.24	1.21	1.2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1.10	1.12	1.09	0.97	0.93	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10	1.10	1.10	1.13	1.14	1.11

자료 : 통계청, KOSIS에서 작성.

그런데 종사자수기준으로 특히 특화의 정도가 높은 산업들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이다. 이들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존재나, 정부 제3청사의 존재에 기인한 탓이 클 것으로 추측되며 앞으로 대전지역이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집적(industrial agglomerations) 또는 산업클러스터(clusters)가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특화산업의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중분류산업기준으로 입지계수를 다시 계산하고 입지계수가 1보다 큰 산업 즉, 특화산업들만 정리한 결과가 <표 2-9>이다.

<표 2-9> 대전광역시 특화산업 최근 입지계수 추이

산업분류	사업체수 기준			종사자수 기준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음료 제조업	0.35	0.36	0.39	0.56	0.84	1.01
담배 제조업	4.78	7.06	8.16	9.90	11.82	9.9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50	1.70	1.69	1.11	1.20	1.2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2	1.46	1.49	1.42	1.52	1.57
수도사업	0.74	0.72	0.74	3.36	3.52	3.45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55	0.41	0.53	1.10	0.89	1.47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38	1.34	1.31	1.64	1.49	1.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05	1.02	1.02	1.11	1.09	1.06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05	1.14	1.13	1.14	1.13	1.05
음식점 및 주점업	1.01	0.99	0.99	1.06	1.03	1.03
통신업	1.20	1.19	1.15	1.10	1.35	1.07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22	1.39	1.38	0.66	0.90	0.78
금융업	1.09	1.05	1.04	1.05	1.01	0.91
보험 및 연금업	1.26	1.33	1.37	1.25	1.31	1.22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0.98	1.01	1.03	0.85	1.01	1.06
부동산업	0.95	0.92	0.93	1.06	1.12	1.18
연구개발업	2.22	2.11	2.08	5.99	5.60	4.93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35	1.44	1.52	1.23	1.47	1.4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5	1.07	1.08	1.27	1.37	1.4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75	0.72	0.71	1.48	1.43	1.55
교육 서비스업	1.12	1.10	1.10	1.32	1.24	1.17
보건업	1.19	1.16	1.15	1.28	1.24	1.23
사회복지 서비스업	1.28	1.26	1.33	1.16	1.13	1.16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4	1.06	1.07	1.13	1.02	1.0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11	1.12	1.10	0.95	0.91	0.89
협회 및 단체	1.14	1.15	1.15	1.10	1.14	1.11
수리업	1.10	1.09	1.09	1.11	1.11	1.08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9	1.08	1.08	1.18	1.16	1.13

자료 : 통계청, KOSIS에서 작성.

표에 따르면 특별히 높은 특화도를 보여주는 중분류기준 산업들은 담배 제조업, 연구개발업, 수도사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보건업, 보험 및 연금업 등으로 정리되며 역시 서비스업 쪽에 특화된 모습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담배제조업과 연구개발업은 매우 압도적인 특화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분류 산업들을 성장속도를 함께 고려하여 분류해본 것이 <표 2-10>이다. 표의 분류기준은 2009년 종사자수 기준으로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고집적산업, 아니면 저집적산업으로 분류하고, 또한 2007~2009년 사이 종사자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면 고성장산업, 미만이면 저성장산업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표에서 17개로 나타나고 있는 고집적·고성장산업들이라면 대전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0> 대전광역시 산업(중분류) 유형화(중사자수 기준)

저집적 고성장	고집적 고성장
항공 운송업 정보서비스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전문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식품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종합 건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연구개발업 수도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저집적 저성장	고집적 저성장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금속 광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수상 운송업, 어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임대업; 부동산 제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농업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금융업, 방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임업	협회 및 단체 수리업 음식점 및 주점업 담배 제조업 보험 및 연금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통신업 교육 서비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주 : 분류기준은 2009년 중사자수 기준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고집적산업, 아니면 저집적 산업으로 분류하고 2007~2009년 사이 중사자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면 고성장산업, 미만이면 저성장산업으로 분류함.

2. 대전광역시 산업경쟁력

앞 절에서 대전광역시의 특화산업들을 살펴보았지만 성장속도가 빠른 특화산업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산업들에 관한 한 대전지역이 산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로도 이해할 수 있다. 약간 다른 측면에서 기업투자환경을 지역별로 지수화한 이병기(2005)연구에 따르면 다소 시간이 지난 분석이기는 하지만 대전지역의 기업투자환경순위가 16개 광역시·도 가운데서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기초투자환경 2위, 인프라환경 4위, 정보화·기술 환경 2위, 그리고 지방정부의 정책환경 3위로 나타나 종합순위 2위를 차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표 2-11> 참조).

<표 2-11> 표준편차 방식을 이용한 기업투자환경지수 분석결과 : 통합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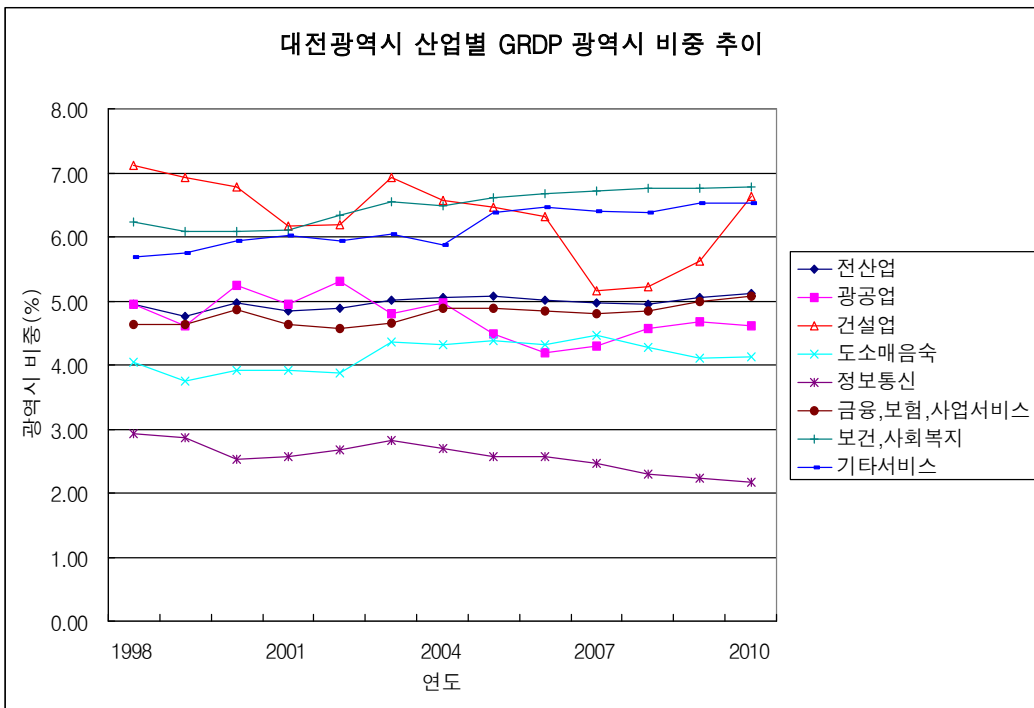
구분	기초투입요소		정보화기술		인프라환경		정부정책		종합지수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서울	0.1674	4	0.2025	1	0.2256	1	0.0758	11	0.6713	1
부산	0.1740	3	0.1277	5	0.2067	2	0.0973	7	0.6057	4
대구	0.1604	6	0.1112	6	0.1511	8	0.0696	12	0.4923	7
인천	0.1660	5	0.1289	4	0.1871	3	0.1231	1	0.6051	5
광주	0.1475	10	0.1033	7	0.1389	9	0.0912	8	0.4809	8
대전	0.1758	2	0.1857	2	0.1699	4	0.1164	3	0.6478	2
울산	0.1481	9	0.0867	10	0.1573	6	0.0662	15	0.4583	10
경기	0.1836	1	0.1686	3	0.1660	5	0.1021	6	0.6203	3
강원	0.1279	15	0.0591	14	0.0694	16	0.0812	10	0.3376	16
충북	0.1351	12	0.0754	11	0.0944	15	0.0680	13	0.3729	13
충남	0.1533	8	0.0889	9	0.1085	13	0.1176	2	0.4683	9
전북	0.1133	16	0.0658	13	0.1004	14	0.0664	14	0.3459	15
전남	0.1289	14	0.0495	16	0.1102	12	0.0828	9	0.3714	14
경북	0.1550	7	0.0685	12	0.1283	10	0.0573	16	0.4091	12
경남	0.1396	11	0.1011	8	0.1526	7	0.1025	5	0.4958	6
제주	0.1328	13	0.0549	15	0.1227	11	0.1112	4	0.4216	11

자료 : 이병기(2005), p.120에서 인용.

양호한 기업투자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기존 기업들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창업이나 타 지역으로부터의 기업유치도 활발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양호한 환경이 산업경쟁력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전광역시의 산업경쟁력을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간단하게는 다른 광역시들과의 산업구조 비교를 통해서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 산업별 GRDP 광역시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 2-8>에 따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건설업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고 성장도 빠르다. 그리하여 전산업의 비중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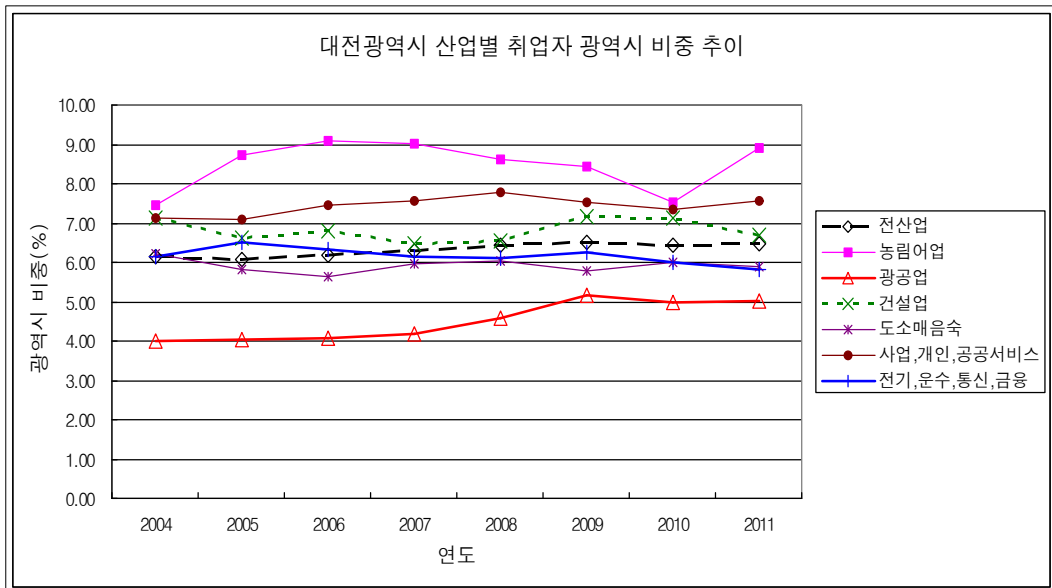
<그림 2-8> 대전광역시 산업별 GRDP 광역시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에서 작성.

취업자 광역시 비중에서는 농림어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최근에는 광공업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그림 2-9> 참조). 이는 취업자 면에서 각종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빠른 성장세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는 농업부문에 특화된 광역시라는 특징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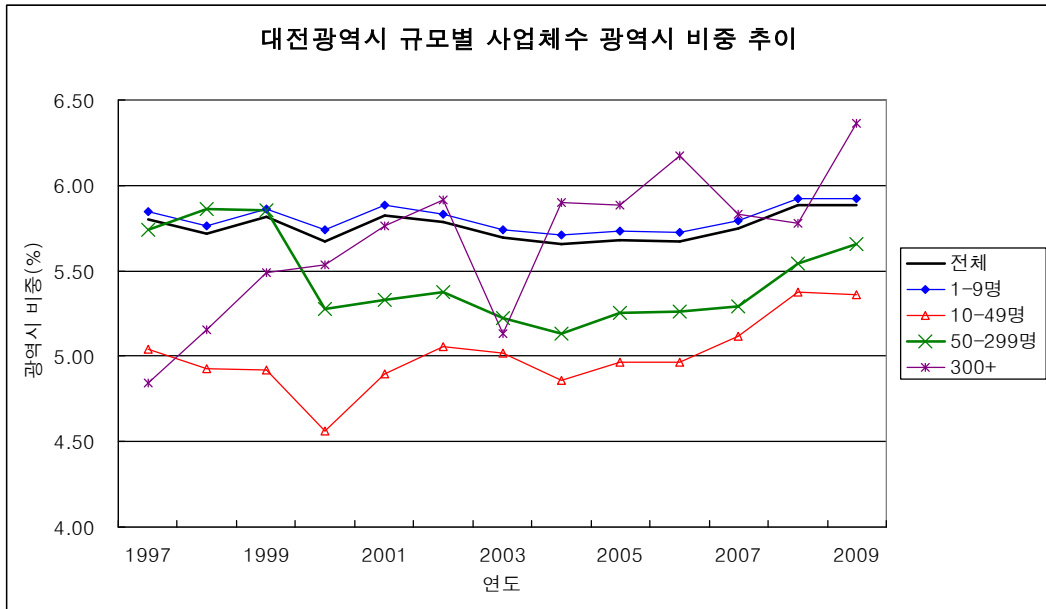
<그림 2-9> 대전광역시 산업별 취업자 광역시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에서 작성.

또한 <그림 2-10>에 의하면 사업체수의 광역시 비중도 최근 다시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기업(종사자수 10~49인 규모)과 대기업(300인 이상)의 사업체수 비중이 광역시 중에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중기업들도 2000년대 중반까지 낮아졌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최근 대전광역시의 기업성장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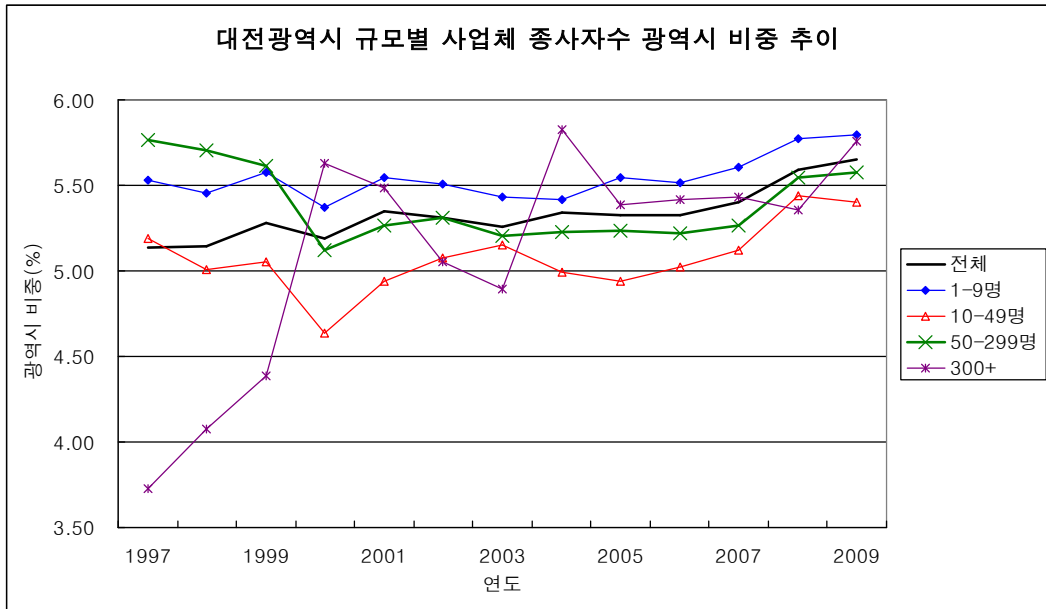
<그림 2-10> 대전광역시 규모별 사업체수 광역시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에서 작성.

이러한 추세는 종사자수로 비교하는 경우 좀 더 분명해진다. 대전광역시는 다른 광역시들에 비해서 일자리들이 상대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도시이다. <그림 2-11>에 의하면 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기업과 대기업의 비중의 변화가 보다 뚜렷하다.

<그림 2-11> 대전광역시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수 광역시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에서 작성.

제 3 장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정책의 추진

제1절 지역의 기업유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과 제도

제2절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정책 추진성과 분석

제 3 장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정책의 추진

제1절 지역의 기업유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과 제도

1. 지역 기업유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

현대는 지구촌화·지식정보화시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발전의 비전으로는 결국 지역의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좋은 일자리의 창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 향상과 아울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과거에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집적(industrial agglomerations)이 강조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특히 산업클러스터(clusters) 개념에 주목하게 되었다(Porter(1990, 1998), Rocha and Sternberg(2005)).

최근에는 산학연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창업 및 기업유치,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성장의 촉진, 일자리 창출, 나아가서 소득증대의 중요성이 부각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방식의 강점은 ①산업들이 연관산업들의 집적이 이루어져 있는 도시지역에 위치하면 이것이 보다 높은 소득과 고용증가율을 생성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②도시지역 내부에서의 클러스터화의 전체적인 보급이 소득수준 및 고용증가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다(Spencer et al.(2010)). 물론 이 방식에 약점도 함께 따를 수 있는데 가장 주목되는 약점으로는 각 지역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제로섬게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이다(Blume(2006); Sheard(2011)).

지역산업의 성장과 발전은 산업의 특화를 가져온다. 특화는 사실 특정 산업 집적의 결과이다. 앞에서 우리는 대전지역의 특화산업들을 살펴보았지만 그것은 해당

산업들이 대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집적도가 높아진 결과이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 집적과 최근 주목을 받는 산업클러스터는 개념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Rocha and Sternberg(2005)는 산업집적은 기업들 간 네트워크를 갖지 못한 클러스터를 의미하고 산업클러스터는 산업집적에 기업간(inter-firm) 네트워크, 그리고 조직간·제도간(inter-organizational or institutional) 네트워크가 모두 갖추어진 단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이러한 개념을 구분하는 이유를 독일의 수많은 클러스터들을 연구한 결과 산업클러스터는 기업가정신(창업)에 분명한 양의 효과를 미치지만 단순한 산업집적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요인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의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Porter(1990, 1998)는 클러스터 내 기업의 경쟁력 요인으로 ①생산요소 조건, ②수요 조건, ③관련 산업들의 존재, ④기업의 전략 및 구조에 주목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기업들 간 또는 기존기업들과 신생기업들 사이의 협력 또는 네트워크 구축이 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Prevezer(2001), Rocha(2004), 그리고 Fukugawa(2006) 참조). Blume(2006)은 지역의 기업환경 결정요인으로 ①기업들에 대한 지자체의 컨설팅서비스, ②지자체의 혁신 정도, ③산업용지 가격과 부동산관리의 중요성, ④지자체 내 부서 간 협력의 정도, ⑤지자체와 지역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상공회의소, 협회, 연구기관들 등) 간 지역네트워크, ⑥유연한 지역행정서비스와 짧은 인허가 소요시간, ⑦집적의 정도(1인당 복지인프라 투자, 1인당 공공서비스 지출, 예술과 문화에 대한 지출, 조세 등), ⑧지역기업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의 크기, ⑨지역 내 지자체와 지역기업들 사이의 협력의 정도 등을 도출해내고 있는데 이들 중 ③, ⑦, ⑧은 높거나 강할수록 기업환경에 불리하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해 두고 있다.

한편, Autant-Bernard, Mangematin, and Massard(2006)는 프랑스에서 고도기술 중소기업들의 창업 결정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①지역 내 과학 활동 활성화가 신규

2) 여기서 Rocha and Sternberg(2005)가 말하는 기업간 네트워크는 클러스터 내 기업들의 시장기반 거래와 비거래적 또는 비공식적 관계 모두를 지칭한다. 또한 조직간·제도간 네트워크는 클러스터 내 기업들과 비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들 사이의 관계를 지칭하며, 공식적 관계(상공회의소 등과 같은 조직들과의 연계)와 비공식적 관계(규범, 상식, 그리고 신뢰 등의 공유)가 모두 포함된다. 후자는 공공재적 성격 또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 근접하는 개념이다.

기업창업의 지속적 흐름 유지에 필요하며, 기업창업의 가능성은 학술조직과 민간조직 사이의 협력과 같은 과학적·기술적 조직요소들에 달려있다는 점, ②산업발전에는 생산물과 서비스에 대한 지역시장 규모도 중요하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제시해 두고 있다.

또한 일본을 연구한 Yamawaki(2002)는 일본의 클러스터 형성요인으로 보다 중요한 것들은 ①선도적인 대기업들의 존재, ②풀을 이루는 노동시장의 이용가능성, 그리고 ③공공의 연구 및 검사시설의 출현 등이라고 쓰고 있다. 더 나아가 Kawai and Urata(2002)는 기업 진입결정 장애요인들로서 ①소규모에 기인한 비용상의 불이익과 ②기술자원의 부족, ③정부지시적 신용의 이용가능성(기존 기업 보호기능 때문) 등이 있고 촉진요인으로는 도급거래 기회의 존재임을 발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두는 논의이기는 하지만 Clercq, Harry, and Crijns(2005)는 국제화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①해외시장과 국제화과정 자체에 관한 집중적인 지식충전과 활용은 더욱 진전된 국제적 확장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들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제화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②기업가정신을 갖춘 기업들은 보다 반동적이고 보수적인 기업들에 비하여 국제적인 활동무대에 장기적이고 실질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기업환경에 대한 국내연구들도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우선 앞에서 언급한 이병기(2005)연구는 기업투자환경으로 기초투자환경(금융 이용가능성, 노동력의 질과 노사관계, 토지가격과 토지 이용가능성 등)(가중치 35.4%)과 인프라환경(항만, 공항, 물류인프라, 의료 및 교육 인력, 주민의 기업에 대한 태도, 준조세부담, 클러스터 발전정도, 소비자물가 등)(28.8%), 정보화·기술 환경(기업간 정보네트워크, 전자상거래, 산학 기술협력 등)(15.3%), 지방정부의 정책환경(행정처리, 기업규제, 지역의 기업유치 노력 등)(20.4%)의 4가지 항목을 도입하고 있다.

박재곤·이원빈(2005)은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투자의 주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역투자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①공장용지 확보 용이(49.9%), ②생산요소 비용 저렴(47.9%), ③협력업체의 집적(39.9%), ④기업가의 연고지 등 개인적인 요인(31.7%) 등을 발견하였으며, ⑤지역투자 인센티브(15.9%)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지적

도 덧붙이고 있다. 한편 박재곤(2010)은 지역 설비투자는 수요요인인 지역내총생산, 제조업 집적도 등에 대해 양(+)의 방향으로 반응하고, 비용요인인 환율, 지가 등에 대해서는 음(-)의 방향으로 반응한다는 분석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 형성과 기업환경 개선 또는 기업유치 영향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 자체적으로 수준 높은 연구 및 기술개발 역량 확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 등을 밀접하게 연결하고 사업화하는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 도시지역의 지속적 발전과 성장의 길은 경쟁력 있는 제조업의 확보와 아울러 단순한 서비스산업화보다는 특성화된 산업들과 밀착·연관되는 지식서비스 산업화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산업들의 집적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역동적인 기업가정신의 발휘와 창업이 지역클러스터 형성에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초투자환경(금융 이용가능성, 노동력의 질과 노사관계,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가격과 토지 이용가능성 등)과 인프라환경(항만, 공항, 물류인프라, 의료 및 교육 인력, 주민의 기업에 대한 태도, 준조세부담, 클러스터 발전 정도, 소비자 물가 등)의 개선과 아울러 지방정부의 정책과 서비스 등 기업성장과 투자에 우호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다.

2. 기업유치 지원제도

주요 관심사는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대전지역 유치에 관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의 초점을 수도권 기업의 유치에 두고자 한다. 현재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세제감면, 금융지원, 종합지원서비스 제

공 등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기업유치 노력 덕분에 지방 이전 기업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1> 참조).

<표 3-1> 기업 지방이전 및 고용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 현황

구분	지원금액	지원기업	지원효과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보조금 (2004~2009)	2,209억원	247개	5.7조원 투자 유치 1.8만 여개 고용 창출
지방 소재 신규투자기업 고용보조금 (2008~2009)	540억원	2,068개	1만 여개 고용 창출

자료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0. 4. 21)인데 김인중 · 김석중(2010), p.16에서 인용.

<표 3-2> 수도권 기업 대전광역시 이전의 경우 보조금 지원 제도 현황

구분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정의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기준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 입지의 정상 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상 임대료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지원 (기존 소재지 부지면적의 5배 이내) • 신청시기 : 계약체결일 부터 1년(80%), 건축허가일부터 3개월(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지원(전략·선도·특화 업종은 12% 이내) ◦ 신청시기 : 건축허가일부터 1년(80%), 사업개시일 부터 6개월(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6개월×60만원 범위내 지원 • 신청시기 :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내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기업 •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 • 공장, 본사 및 연구소를 각각 또는 전부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는 지역의 기업유치(이전)를 지원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 고시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고시(2012년 1월 4일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2-4호 제정)의 내용은 대체로 <표 3-2>와 같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 등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시행중인데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그 내용이 <표 3-3>으로 정리될 수 있다.

<표 3-3> 대전광역시의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제도 개요

구분	대상	세제지원내용
과세특례 (법인세)	①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과 부지를 양도한 기업 ②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 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기업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양 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② 조건 : 2014.12.31까지 양도
세액감면 (법인세, 소득세)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이전 중소 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 업 영위(본사, 공장 전부 이전)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5년간 100/100 - 2년간 50/100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① 조건 : 2014.12.31까지 이전사업 개시
	②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 전하는 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공장 전부 또는 본사)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5년간 100/100 - 2년간 50/100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② 조건 : 2014.12.31까지 이전사업 개시 또는 2014.12.31까지 보유 2017.12.31까지 개시
	③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 - 첨단기술기업(2012.12.31까지 지정) - 연구소기업(2012.12.31까지 승인) ※감면대상산업 : 생명공학 관련, 정보통신 관 련, 첨단기술 및 첨단 제품과 관련산업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3년간 100/100 - 2년간 50/10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2
취득세	①협동화 공장 ②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 ③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개 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 물 ④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⑤대덕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 인투자기업,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사 용하기위해 취득한 부동산	▶ 취득세 면제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7, 11, 12, 14 조
재산세	①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대덕특구지원본부 ②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소유하는 부동산	▶ 재산세 경감 - 5년간 50/100 ▶ 면제 : 7년간 ▶ 경감 : 3년간 50/100
수돗물 값 감면 추진		▶ 약 19% 경감
녹지구역 건축면적 확대 조정		▶ 건폐율 : 20% → 30%로 확대 ▶ 용적률 : 80% → 150% 적용

자료 : 대전광역시, 국제통상투자과, 2011.

제2절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정책 추진성과 분석

1. 2010년 기업유치 성과

그동안 대전광역시는 기업유치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0년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성과는 <표 3-4>에서 보는 대로 기업유치 202개사, 일자리 확보 8,590명에 이르고 있다.

<표 3-4> 2010년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성과

업종	유치 성과
제조업	88개 / 2,194명(의료기기 제조업체 등)
기업지원서비스업	50개 / 665명(세올디자인컨설팅 등)
연구개발업	24개 / 1,546명(한화 국방미래기술연구소 등)
정보서비스업	23개 / 346명(롯데정보통신 등)
기업지원기관	7개 / 479명(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콜센터	9개 / 360명(롯데손해보험 등)
기타	1개 / 3,000명(신세계 복합유통시설)
합계	202개 / 8,590명

자료 : 대전광역시, 국제통상투자과.

아울러 기업유치를 위한 MOU 체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예컨대 세종시 입주예정 기업들과 첨단의료기기 제조업체 유치를 위한 MOU 체결 등이 주요 성과였다.

<표 3-5> 이전 예정 기업과 MOU 체결 내용

구 분	내 용
세종시 입주예정 기업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웅진에너지(주) : 대덕특구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2010. 10. 11) • (주)한화 : 대덕R&D특구에 국방미래기술연구소 설립 협약(2010. 11. 4)
첨단의료기기 제조업체 유치 (2010. 8. 11 업무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비전과학 : 대덕테크노밸리(4,308.3㎡) / 2010년 10월 토지매매 계약 • (주)사이버메드 : 대덕특구1단계 신성지구(2,549.0㎡) / 2010. 12월 분양 계약 • (주)디아메스코 : 대덕특구 아파트형공장(1,808.8㎡) / 2010. 10월 분양 계약
기타 기업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원정밀 : 대덕특구 1단계 죽동지구(15,738.0㎡) / 2010. 12월 분양 계약 • (주)하이테크시스템 : 대덕특구 1단계 죽동지구(1,980.0㎡) / 분양 계약 추진중 • 한국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 건립 업무협약(2010. 8. 3) • 로봇 관련 기업 이전 및 투자지원 협력 약정(2010. 4. 20) / 엔티렉스, 로보스, WTK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전분소 설치 업무협약(2010. 1. 7) / KTL • 가스기술공사 대전이전 추진 업무협력 약정(2010. 2. 3) / 한국가스기술공사

자료 : 대전광역시, 국제통상투자과.

2. 2011년 기업유치 목표

이러한 기업유치 노력은 2011년에도 계속되었는데 2011년 기업유치 목표는 150개, 일자리 확보 4,100여 개로 책정되었으며 그 개요는 <표 3-6>과 같다.

<표 3-6> 2011년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목표

유 형	유치목표
국내기업·연구소	80개 / 3,000명(지원기관 포함)
외투기업 연구소	10개(MOU 체결 등) / 100여명
콜 센 터	10개 / 500여명
신·증설기업	50개 / 500여명(제조업체, 사업지원서비스 등)
합 계	150개 / 4,100여명

주 : 특구 1단계 산업용지 분양 마무리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의 지연 등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부족 때문에 기업유치 목표 하향 설정.

자료 : 대전광역시 국제통상투자과.

2011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의 기업유치 추진전략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체적인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구체적 세부지원기준을 제정·운용한다는 것으로 ①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산업용지에 기업을 유치하되 녹색성장산업, 전략산업, 선도산업, 특화업종 등 미래신성장산업 소속 기업들을 유치·육성하고, 또한 특구 2단계 신동지구 개발 컨셉(나노융합 등)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활동을 강화하며, ②의료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첨단의료산업 관련 기업들을 아파트형공장, 특구 2단계 산업용지, 유희공간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유치하는 활동을 전개하며, ③관내 기업 중 지역전략산업 및 선도산업, 그리고 지역특화산업의 신·증설 촉진 및 신규고용 창출 확대에 노력하며, ④콜센터협의회 기능 강화 및 상담원 사기진작 시책들도 적극 추진하고, ⑤전용교육장 확대 운영(10기 300명) 등으로 콜센터 성장기반을 계속 확충해나간다는 방향 등이다.

3. 수도권 기업유치 성과와 이전 사업체들의 실태

이러한 대전광역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특히 수도권 기업(정확하게는 기업이라기 보다는 사업체) 유치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도권 사업체 유치성과를 심층분석해보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유치 사업체들의 실태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표 3-7> 조사된 이전 사업체들의 산업별 구성

(개, 명, %)

산업분류	사업체수		종업원수	
	개	구성비	명	구성비
제조업	44 (46)	40.0	732	22.0
건설업	3 (3)	2.7	300	9.0
도매 및 소매업	13 (13)	11.8	104	3.1
운수업	1 (1)	0.9	17	0.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 (17)	14.5	678	20.4
금융 및 보험업	8 (8)	7.3	702	2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 (19)	17.3	558	16.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 (2)	1.8	164	4.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1)	0.9	43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	0.9	12	0.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2)	1.8	10	0.3
합 계	110 (113)	100.0	3,320	100.0

주 : () 안의 수는 조사된 사업체의 수이며 () 밖의 수치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해당 기업들 종업원수가 결측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설문조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도권으로부터 대전광역시로 이전하여온 16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현황, 인력 및 근무여건, 이전 이후 기업경영 평가 및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정책 평가 등 항목들에 대한 1:1 방문 면담조사로

이루어졌는데 이들 중 113개 사업체만이 설문에 응하여 조사비율은 67.7%에 이르고 있다.³⁾ 조사기간은 2011년 10월 4일 ~ 10월 14일(토·일 제외 9일간)이었음도 밝혀 둔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 장에서는 이들 사업체들의 이전이 대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파급효과 분석의 초점은 생산효과, 부가가치효과 일자리창출효과 등의 파악에 두고 이에 기초하여 기업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함의도 도출해볼 것이다.

결측이 발생하지 않은 110개 조사대상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살펴볼 때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제조업 4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5%, 도매 및 소매업 11.8%, 금융 및 보험업 7.3%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기업들의 종업원 총수는 3,320명에 달하였는데 이들 종업원수기준으로는 제조업 22.0%, 금융 및 보험업 2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8%, 건설업 9.0%, 그리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9%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3-8> 이전 사업체의 규모별 구성

(개, 명, %)

규모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기존 사업체 (2009년)		유치 사업체		기존 사업체 (2009년)		유치 사업체	
1-9명	86,787	93.1	46	41.8	191,985	41.0	221	6.7
10-49명	5,243	5.6	43	39.1	100,592	21.5	876	26.4
50-299명	1,031	1.1	21	19.1	100,085	21.4	2,223	67.0
300명 이상	115	0.1	0	0.0	75,839	16.2	0	0.0
합계	93,176	100.0	110	100.0	468,501	100.0	3,320	100.0

3) 당초에는 수도권 이전기업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였으나 조사에 응한 기업들의 비율이 67.7%에 머물게 된 것은 이전을 약속한 기업들 중 일부는 아직 이전을 실천하지 못하였거나 이전이 완료된 단계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적절하지 못하였던 탓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에서는 조사된 기업들이 수도권 이전기업들의 전체를 대체로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분석을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그런데 이들 이전 사업체의 규모는 대전광역시의 기존 사업체들과 비교할 때 영세기업의 비중은 매우 낮고 중기업과 소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중기업 종사자수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3-8> 참조).

또 한 가지 특징으로 발견되는 것은 유치 사업체들이 유성구지역에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입지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65.5%,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50.3%에 이르고 있다(<표 3-9> 참조). 이는 산업구성과 관련시켜 볼 때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제3·4공단에의 입주가 제조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특화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9> 이전 사업체의 자치구별 구성

(개, 명, %)

규모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기존 사업체 (2009년)		유치 사업체		기존 사업체 (2009년)		유치 사업체	
동구	16,774	18.0	4	3.6	61,175	13.1	84	2.5
중구	18,288	19.6	11	10.0	80,834	17.3	687	20.7
서구	28,116	30.2	14	12.7	146,849	31.3	708	21.3
유성구	14,409	15.5	72	65.5	99,930	21.3	1,669	50.3
대덕구	15,589	16.7	9	8.2	79,713	17.0	172	5.2
합계	93,176	100.0	110	100.0	468,501	100.0	3,320	100.0

한편 조사 사업체들의 이전연도 분포는 2008년 이후가 72.7%를 차지하고 있다(<표 3-10> 참조).

이전 사업체들의 이전 후 경영성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파악해보았는데 이전 후에 종업원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와 매출액이 증가하였는지 여부가 그것이다. 이를 정리한 <표 3-11>에 따르면 종업원수가 감소하였다는 사업체는 12.7%였고 종업수 기준으로 6.9%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이전 사업체들은 종업원수가 현상유지되거나

나 증가하였다는 결론이 얻어진다. 그렇지만 매출액의 경우는 응답을 기피한 결측치가 많아 분명한 결론을 얻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훨씬 많은 사업체들이 매출이 증가하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전지역 이전은 수도권 기업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3-10> 이전 사업체의 이전연도별 구성

(개, 명, %)

이 전 연 도	사업체수		종업원수	
		구성비		구성비
2011년	9	8.2	149	4.5
2010년	33	30.0	1,066	32.1
2009년	21	19.1	838	25.2
2008년	17	15.5	394	11.9
2007년 이전(以前)	30	27.3	873	26.3
합 계	110	100.0	3,320	100.0

<표 3-11> 이전 사업체의 이전 후(2011년) 종업원수와 매출액 증감 상황

(개, 명, %)

규모분류	종업원수 증감				매출액 증감			
	사업체수		종업원수		사업체		종업원수	
감소	14	12.7	230	6.9	5	4.5	50	1.5
현상 유지	69	62.7	2,323	70.0	13	11.8	440	13.3
증가	27	24.5	767	23.1	47	42.7	1,148	34.6
무응답	-	-	-	-	45	40.9	1,682	50.7
합계	110	100.0	3,320	100.0	110	100.0	3,320	100.0

이상의 사업체들의 실태에 기초하여 이제 이들 사업체들의 유치가 대전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해보기 위한 전단계작업으로 이들 사업체들이 생산해 내는 부가가치와 산출액을 추정해보기로 하자. 그런 이미 언급하였듯이 사업체들의

매출액(또는 출하액)에는 결측이 매우 많고 그 신뢰도도 가늠하기 어려워서 진전된 추정작업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감한 가정들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전 사업체들이 생산해내는 부가가치와 산출액을 모두 2010년 가격 기준으로 추정하며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를 2009년 기준의 대전지역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수와 산업별 명목GRDP에 의거하여 계산한다.4)

<표 3-12> 이전 사업체들이 생산하는 산업별 부가가치 및 산출액 구성(2010년)

(개, 명, 백만원)

산 업 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	산출액 (%)
농업, 임업 및 어업	0	0	0	0
광업	0	0	0	0
제조업	44	732	62,189	290,465 (47.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	0	0	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	0	0	0
건설업	3	300	16,237	52,242 (8.4)
도매 및 소매업	13	104	3,541	8,048 (1.3)
운수업	1	17	477	1,834 (0.3)
숙박 및 음식점업	0	0	0	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	678	46,424	108,519 (17.5)
금융 및 보험업	8	702	48,050	86,592 (1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0	0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	558	25,249	49,402 (8.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	164	7,421	14,519 (2.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43	3,824	5,689 (0.9)
교육 서비스업	0	0	0	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	0	0	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2	420	831 (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10	246	481 (0.1)
합계	110	3,320	214,078	618,624 (100.0)

주 : 2010년 가격기준으로 추정함.

4) 2009년 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은 현재까지 지역별·산업별 사업체조사 결과가 2009년 자료까지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편제하는 국민계정의 산업별 명목GDP 성장자료에 근거하여 2010년 기준의 대전지역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 1인당 명목부가가치와 산출액을 추정한다. 그 결과는 <표 3-12>로 정리될 수 있다.

이상의 이전 사업체 실태분석에서 우리는 수도권 사업체들의 이전이 유성구 등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또한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기존의 특화도가 높은 산업들에 집중됨에 따라 대전지역의 특화산업들의 산업집적을 촉진하고 사업체 대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 사업체들의 대부분이 이전 후 종업원수가 유지 또는 증가하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4. 수도권 기업유치 성공요인 분석과 시사점

이전 사업체들에게 대전광역시로의 이전이유를 설문한 결과 가장 많은 사업체들이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성과물 활용 등 기술개발기반 우수하다”(27.4%), “관련 기업들이 많아 경영활동에 편리하다”(23.6%), “세제감면, 행정지원 등 지원제도들이 우수하다”(22.6%)를 꼽고 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생산물의 전국 판매망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18.9%)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산·학·연·관 협력기반이 우수하다”(16.0%)는 이전이 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13> 참조).

그렇지만, 대전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상태를 설문한 결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매출액 증가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답한 사업체들은 “그렇다”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금융지원, 조세 부담, 인건비 부담, 직원채용의 용이성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14> 참조).

<표 3-13> 대전지역으로 이전한 이유

이 전 사 유	응답업체수	백분율(%)
관련 기업 많아 경영활동 편리	25	23.6
대기업 하청	6	5.7
세제감면, 행정지원 등 지원제도 우수	24	22.6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성과물 활용 등 기술개발기반 우수	29	27.4
산업단지의 우수한 기업환경	10	9.4
산·학·연·관 협력기반 우수	17	16.0
생산물의 전국 판매망 조달비용 절감	20	18.9
인건비 저렴	6	5.7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환경 우수	5	4.7
우수인력 풍부	6	5.7
토지가격 등 용지가격 저렴	6	5.7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및 성장환경 유리	13	12.3
응답 사업체수	106	

주 :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표 3-14> 대전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상태

대전지역으로 이전해 오기 전과의 비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매출액 증가가 확대되는 추세	2.3	10.3	43.7	39.1	4.6	100.0
수출실적이 늘어나는 추세(수출하는 기업에 국한)	9.8	14.6	58.5	14.6	2.4	100.0
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기가 더 용이해지는 추세	8.8	20.6	57.4	13.2	0.0	100.0
준조세 등을 포함한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추세	8.6	22.9	52.9	12.9	2.9	100.0
직원수가 증가하는 추세	8.4	26.5	38.6	21.7	4.8	100.0
직원채용이 더 쉬워지는 추세	21.8	23.1	39.7	15.4	0.0	100.0
임금 등 인건비 부담이 감소하는 추세	13.2	34.2	42.1	10.5	0.0	100.0

5. 수도권 기업유치 영향요인 추출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이상의 분석에 이어 우리는 이전 사업체들의 이전 후 종업원 증가 여부와 매출액 증가 여부에 영향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간단한 회귀분석도 시도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회귀모형은 (1)식의 형태인데 종속변수가 증가여부 변수이므로 Probit분석을 시도해보기로 한다.

설명변수로 사용된 YUSEONG은 유성구 더미, MAGE는 이전 연륜, RWAGE 상대임금수준, SMALL 소기업 더미, MEDIUM 중기업 더미, MAN 제조업 더미, WHRE 도소매업 더미, PVI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더미, SST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더미, BSS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더미변수이다. 회귀모형에 사용된 전체 변수들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표 3-15>에 정리되어 있다.

$$Y = f(YUSEONG, MAGE, RWAGE, SMALL, MEDIUM, MAN, WHRE, PVI, SST, BSS,) \quad (1)$$

<표 3-15>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요약통계

변 수	관측치수	평균	설 명
종업원수 증가 여부	110	0.245	이전 후 2011년에 전년보다 종업원수 증가이면 1, 아니면 0
매출액 증가 여부	87	0.437	이전 후 매출액 증가추세이면 1, 아니면 0
유성구	113	0.646	유성구 소재이면 1, 아니면 0
이전연륜	113	3.159	이전 후 경과 연수
상대임금수준	112	3.063	입사 1년차 종업원 임금이 동종업계보다 매우 낮은 편 1, 낮은 편 2, 비슷한 수준 3, 높은 편 4, 매우 높은 편 5
소기업	110	0.391	종업원수 규모 10~49명이면 1, 아니면 0
중기업	110	0.191	종업원수 규모 50~299명이면 1, 아니면 0
제조업	113	0.407	제조업이면 1, 아니면 0
도소매	113	0.115	도소매업이면 1, 아니면 0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113	0.150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이면 1, 아니면 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13	0.16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면 1, 아니면 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	113	0.018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이면 1, 아니면 0

모형에 대한 Probit분석 결과는 <표 3-16>에 정리되어 있는데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설명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이 발견된다.

첫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제3·4공단이 위치하는 유성구에 이전한 사업체의 경우 종업원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는 이전 사업체들이 이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기업경영성과 제고에도 뚜렷하게 유리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또한 사업체 이전이 대전광역시 특화산업 등의 산업집적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표 3-16> 유치 사업체 대전 이전 후 종업원수 증가에 대한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종업원수 증가 여부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상수	-2.554**	-2.078	-2.141*	-1.902	-2.086**	-2.010	-1.128**	-3.202
유성구	0.4890	1.247	0.6104	1.618	0.5261	1.561	0.5595*	1.701
이전연륜	-0.1020*	-1.750	-0.09131	-1.611	-0.09786*	-1.718	-0.09723*	-1.702
상대임금수준	0.3303	0.9773	0.2988	0.9062	0.3245	1.035		
소기업	0.9072**	2.461	0.7773**	2.312	0.7288**	2.245	0.7113**	2.217
중기업	0.8030*	1.724	0.6305	1.484	0.6148	1.463	0.7067*	1.709
제조업	0.2938	0.5317	-0.06542	-0.1611				
도소매	0.6470	0.9815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0.6145	-0.9490	-0.9210	-1.640	-0.9310**	-1.983	-0.9574**	-2.046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5426	0.9294	0.1868	0.414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	1.150	1.244	0.9168	1.023				
N	109		109		109		110	
대수우도값	-51.989		-52.475		-53.177		-54.119	

주 : 모두 Probit모형에 의거한 추정결과임. * 표시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측검정) 경우이며 ** 표시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경우임.

둘째, 이전연륜이 종업원수 증가에 음의 효과를 유의하게 미치고 있음도 확인된다. 이전연륜이 길어질수록 다르게 표현하여 일찍 이전하여온 사업체일수록 성장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실 이전기업에 주어지는 보조금 등 이전혜택도

시간이 경과할수록 줄어들고 사라져 갈 것이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전지역으로 이전하여 온 사업체들의 일자리 창출이 이전 기간이 경과할수록 줄어든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에도 정책노력이 경주되어야 필요성이 인식된다. 아울러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더욱 진전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업규모면에서 소기업과 중기업의 경우 종업원수 증가가 유의하게 발생한다는 점도 발견된다. 기본범주가 영세기업이었으므로 이는 종업원수 1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유치가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업종으로 볼 때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체들의 경우는 종업원수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도 유의하게 확인된다. 이는 인력수급 면에서 공급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탓일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3-17> 유치기업 대전 이전 후 매출액 증가에 대한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매출액 증가 여부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상수	-1.433	-1.2248	-1.054	-0.9770	-1.230	-1.211	-0.03687	-0.1005
유성구	-0.1956	-0.5048	-0.09729	-0.2615	-0.1779	-0.5184	-0.2171	-0.6486
이전연륜	-0.08587	-1.3908	-0.07590	-1.274	-0.08171	-1.397	-0.08665	-1.463
상대임금수준	0.3583	1.1036	0.3302	1.031	0.3767	1.215		
소기업	0.7416**	2.0163	0.6224*	1.843	0.5821*	1.762	0.6124*	1.874
중기업	1.149**	2.2840	1.021**	2.131	0.9648**	2.067	1.002**	2.172
제조업	0.09085	0.1650	-0.2345	-0.5653				
도소매	0.5972	0.8927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0.9432	-1.4738	-1.207**	-2.129	-1.058**	-2.204	-1.104**	-2.324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2838	0.4803	-0.04275	-0.09197				
N	83		83		83		84	
대수우도값	-49.386		-49.787		-49.981		-51.145	

주 : 모두 Probit모형에 의거한 추정결과임. * 표시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측검정) 경우이며 ** 표시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경우임.

제 4 장

수도권 기업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계측과 분석

제1절 산업별 생산활동의 파급효과 계측기법

제2절 수도권기업 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계측결과 분석

제 4 장 수도권 기업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계측과 분석

제1절 산업별 생산활동의 파급효과 계측기법

이제 우리는 수도권 이전 사업체들이 대전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해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주지하는 대로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등과 같은 최종수요에서의 변동이 초래하는 생산활동의 변화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그 파급효과를 계측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대전지역 유치기업들의 생산활동도 이와 마찬가지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대전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즉 생산, 소득(부가가치), 고용 등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첫째는 어떤 산업연관표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보다 정확한 계측을 위해서는 대전지역에 대하여 작성된 지역산업연관표가 사용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이 현재 2005년 기준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발표해두고 있으므로 상당한 정도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를 이용할 수는 있다. 우리는 이하에서 2005년 기준의 지역간 산업연관표⁵⁾를 대전지역 중심으로 정돈한 대전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할 것이다(<표 4-2> 참조).

둘째는 유치기업들의 생산활동이 대전지역 경제에서도 최종수요활동은 아니기

5) 지역산업연관표는 크게 지역내산업연관표와 지역간산업연관표로 나누어진다. 지역간산업연관표는 2개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상호 간에 발생하는 경제거래를 기록하는 표이므로 지역내 산업연관표보다 훨씬 복잡하고 실제 작성을 위해서도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지역간산업연관표는 기본형인 Isard류의 지역간비경쟁이입형 산업연관표와 Chenery의 지역내산업연관표를 Moses가 발전시킨 소위 Chenery-Moses류의 지역간경쟁이입형 산업연관표가 있으며 지역내 산업연관분석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내산업연관표와는 달리 주로 지역 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상호관련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배진환(1981) 참조).

때문에 이러한 생산활동 정보를 활용하여 어떻게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측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2007)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예컨대 어떤 건설활동이나 정부서비스 생산활동 등 각종 생산활동이 국민경제 내에서 여타 산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계측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놓고 있다.

1. 한국은행이 제안하는 파급효과 계측방법

먼저 문제의 분석대상 산업부문이 내생부문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이들 관련부문을 외생부문으로 다루는 별도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쓰고 있다. 건설활동의 파급효과 분석의 예를 살펴볼 수 있다.

내생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부문의 행과 열을 내생부문에서 제외하여 외생부문에 포함시키면 다음 <표 4-1>과 같은 형식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X^d 는 국산품 중간투입액, X^m 은 수입품 중간투입액을 의미한다.

이때 $X_{ij} = a_{ij}X_j$ 이므로 균형식은

$$a_{11}^d X_1 + a_{12}^d X_2 + a_{13}^d X_3 + \cdots + a_{1h}^d X_h + F_1^d = X_1$$

$$a_{21}^d X_1 + a_{22}^d X_2 + a_{23}^d X_3 + \cdots + a_{2h}^d X_h + F_2^d = X_2$$

$$a_{31}^d X_1 + a_{32}^d X_2 + a_{33}^d X_3 + \cdots + a_{3h}^d X_h + F_3^d = X_3$$

가 되는데 이를 행렬식으로 표시하면

<표 4-1> 건설부문을 외생화한 산업연관표(3부문의 경우)

구분	내생부문	외생부문		수입	총산출
		건설	최종수요		
국산	$X_{11}^d \ X_{12}^d \ X_{13}^d$ $X_{21}^d \ X_{22}^d \ X_{23}^d$ $X_{31}^d \ X_{32}^d \ X_{33}^d$	X_{1h}^d X_{2h}^d X_{3h}^d	F_1^d F_2^d F_3^d		X_1 X_2 X_3
수입	$X_{11}^m \ X_{12}^m \ X_{13}^m$ $X_{21}^m \ X_{22}^m \ X_{23}^m$ $X_{31}^m \ X_{32}^m \ X_{33}^m$	X_{1h}^m X_{2h}^m X_{3h}^m	F_1^m F_2^m F_3^m	M_1 M_2 M_3	
건설	$X_{h1} \ X_{h2} \ X_{h3}$	X_{hh}	F_h^d		X_h
부가가치	$X_1^v \ X_2^v \ X_3^v$	X_h^v			V
총투입	$X_1 \ X_2 \ X_3$	X_h			

$$\begin{bmatrix} a_{11}^d & a_{12}^d & a_{13}^d \\ a_{21}^d & a_{22}^d & a_{23}^d \\ a_{31}^d & a_{32}^d & a_{33}^d \end{bmatrix} \begin{bmatrix} X_1 \\ X_2 \\ X_3 \end{bmatrix} + \begin{bmatrix} a_{1h}^d \\ a_{2h}^d \\ a_{3h}^d \end{bmatrix} X_h + \begin{bmatrix} F_1^d \\ F_2^d \\ F_3^d \end{bmatrix} = \begin{bmatrix} X_1 \\ X_2 \\ X_3 \end{bmatrix}$$

$$\mathbf{A}^d \mathbf{X} + \mathbf{A}_h^d X_h + \mathbf{F}^d = \mathbf{X}$$

$$\mathbf{A}^d \mathbf{X} + \mathbf{A}_h^d X_h + \mathbf{F}^d = \mathbf{X}$$

$$\text{따라서 } \mathbf{X} = (\mathbf{I} - \mathbf{A}^d)^{-1} (\mathbf{A}_h^d X_h + \mathbf{F}^d) \quad (1)$$

가 된다.

단 $(\mathbf{I} - \mathbf{A}^d)^{-1}$: 건설부문이 제거된 국산투입계수행렬 \mathbf{A}^d 로 구한 $(\mathbf{I} - \mathbf{A}^d)$ 의 역행렬

\mathbf{A}_h^d : 건설부문이 제거된 후의 건설부문 국산투입계수벡터

(1)식에서 최종수요 증가가 영(0)이고 건설부문에서 ΔX_h 가 생산될 때 파급되는 다른 부문의 생산증가벡터를 $\Delta \mathbf{X}$ 라 하면

$$\Delta X = (I - A^d)^{-1} A_h^d \Delta X_h \quad (2)$$

가 되어 $(I - A^d)^{-1} A_h^d$ 만 미리 계산해 두면 건설활동에 의한 여타부문의 각 산업 부문별 생산유발효과 ΔX 를 쉽게 계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방법은 한국은행(2007)이 소개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이 방법을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유치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상당한 계산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앞의 유치기업들 산업구성을 대분류기준으로만 살펴보다도 11개 산업⁶⁾에 달하므로 이들을 각각 외생부문으로 변화시켜 매번 각 해당 산업이 내생부문에서 제거된 새로운 산업연관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작업을 11번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계산을 한 번에 동시에 계측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며 우리의 유치기업 파급효과 계측작업에서는 이 새로 개발한 방법을 적용할 것이다.

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파급효과 계측방법

여기서 사용할 우리의 방법에서는 한국은행(2007)의 방법과 다르게 우선 기존의 산업연관표를 전혀 변형시킬 필요가 없다. 즉 건설부문을 따로 추출하여 외생부문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방법은 건설부문의 생산활동이 여타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할 때 문제의 건설부문 총산출액 증가분 ΔX_h 를 건설부문의 최종수요 증가분 ΔF_h^d 로 변환시켜서 이 원소를 포함하는 최종수요벡

6)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다.

터를 건설부문이 제거되지 않은 원래의 국산투입계수로 구한 역행렬에 뒷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예컨대 다음 식을 생각해보자.

$$\begin{matrix} \begin{bmatrix} a_{11}^d & a_{12}^d & a_{13}^d & a_{1h}^d \\ a_{21}^d & a_{22}^d & a_{23}^d & a_{2h}^d \\ a_{31}^d & a_{32}^d & a_{33}^d & a_{3h}^d \\ a_{h1}^d & a_{h2}^d & a_{h3}^d & a_{hh}^d \end{bmatrix} & \begin{bmatrix} X_1 \\ X_2 \\ X_3 \\ X_h \end{bmatrix} & + & \begin{bmatrix} F_1^d \\ F_2^d \\ F_3^d \\ F_h^d \end{bmatrix} & = & \begin{bmatrix} X_1 \\ X_2 \\ X_3 \\ X_h \end{bmatrix} \\ \mathbf{A}^{od} & \mathbf{X}^o & & \mathbf{F}^{od} & & \mathbf{X}^o \end{matrix}$$

$$\mathbf{A}^{od} \mathbf{X}^o + \mathbf{F}^{od} = \mathbf{X}^o$$

$$\text{따라서 } \mathbf{X}^o = (\mathbf{I} - \mathbf{A}^{od})^{-1} \mathbf{F}^{od} \quad (3)$$

가 된다.

단 $(\mathbf{I} - \mathbf{A}^{od})^{-1}$: 건설부문이 제거되지 않은 원래의 지역내 투입계수행렬 \mathbf{A}^{od} 로 구한 $(\mathbf{I} - \mathbf{A}^{od})$ 행렬의 역행렬

여기서 건설부문 생산활동 증가분 ΔX_h 의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ΔX_h 를 건설부문 최종수요 증가분 ΔF_h^d 로 변환시켜야 한다. 이 변환과정은 결국 건설부문의 생산활동이 연간 산출액(출하액)기준으로 측정되거나 제시될 것이므로 그 파급효과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이를 건설부문의 최종수요로 변환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계산과정이다. 우선 위 (3)식에서

$$(\mathbf{I} - \mathbf{A}^{od})_h^{-1} \Delta F_h^d = \Delta X_h \quad (4)$$

라 놓는다. 이때

ΔF_h^d : 우리가 구하려는 변환된 건설부문 최종수요 증가분인데 미지수이다.

ΔX_h : 건설부문 총산출액 증가분이고 이는 알려져 있다.

$(I - A^{od})_h^{-1}$: 원래의 투입계수행렬(건설부문 포함)의 역행렬계수행렬 $(I - A^{od})^{-1}$ 에서 건설부문 역행렬계수 원소만 선택하여 만든 역행렬계수 행렬인데 건설부문이 하나의 부문이므로 결국 이는 스칼라값이다. 즉 $(I - A^{od})^{-1}$ 행렬의 계수 b_{ij} 가 앞의 예에서처럼 4×4 의 행렬로 나타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h 번째 분류의 산업이 건설업이라면 $(I - A^{od})_h^{-1} = b_{hh}$ 로 정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이 $(I - A^{od})_h^{-1}$ 는 기지의 행렬 또는 스칼라값이 된다.

그렇다면 위 (4)식에서 미지인 건설부문 최종수요 ΔF_h^d 는 $\Delta X_h / b_{hh}$ 로 바로 구해질 수 있다. 건설부문 최종수요 ΔF_h^d 의 값이 구해지면 이제 이 건설부문 최종수요 증가분이 지역전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다음 (5)식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 (5)식의 ΔF_h^{od} 벡터는 (6)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번째(즉, 네 번째) 원소가 ΔF_h^d 이고 나머지 원소들은 모두 0인 벡터이다.

$$\Delta X^o = (I - A^{od})^{-1} \Delta F_h^{od} \quad (5)$$

$$\begin{bmatrix} \Delta X_1 \\ \Delta X_2 \\ \Delta X_3 \\ \Delta X_h \end{bmatrix} = \begin{bmatrix} b_{11} & b_{12} & b_{13} & b_{1h} \\ b_{21} & b_{22} & b_{23} & b_{2h} \\ b_{31} & b_{32} & b_{33} & b_{3h} \\ b_{h1} & b_{h2} & b_{h3} & b_{hh} \end{bmatrix} \begin{bmatrix} 0 \\ 0 \\ 0 \\ \Delta F_h^d \end{bmatrix} = \begin{bmatrix} b_{1h} \Delta F_h^d \\ b_{2h} \Delta F_h^d \\ b_{3h} \Delta F_h^d \\ b_{hh} \Delta F_h^d \end{bmatrix} \quad (6)$$

(6)식 우변 마지막 벡터에서 네 번째 원소 $b_{hh} \Delta F_h^d$ 가 바로 좌변 벡터의 마지막 원소 ΔX_h 임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관계이다. 그런데 나머지 원소값들 $b_{1h} \Delta F_h^d$, $b_{2h} \Delta F_h^d$, 그리고 $b_{3h} \Delta F_h^d$ 는 결국 한국은행(2007)이 사용하는 방식인 (2)식의 ΔX 의 각 원소들 ΔX_1 , ΔX_2 , 그리고 ΔX_3 와 각각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급효과를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산업의 산출액 변화분이 주어진다면 이를 해당 산업의 최종수요 변화분으로 변환시켜서 지역전체 투입계수행렬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도 지역전체 산업들에 미치는 산출파급효과를 한번에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방식은 투입계수행렬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장점 외에도 또 한가지 장점을 가지는데 그것은 여러 개의 선택된 산업들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산출변화가 지역 전산업에 초래하는 파급효과도 한번에 계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선택된 각 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각각 산출변화를 최종수요변화로 변환하여 이들을 원소들로 삼는 하나의 벡터를 만들어 (5)식의 형태로 계산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수도권 이전기업들 산출의 파급효과 계측에 사용될 ΔF_h^{od} 벡터는 바로 앞장 <표 3-11>의 산업별 산출액열(列)을 최종수요 변화분열로 변환시킨 벡터이다. 그런데 이 벡터들에는 이제 이전기업들을 모두 포괄하는 11개의 다양한 산업들이 함께 포함되므로 산업별 산출액 변화분열은 ΔX_p^o 라는 새로운 벡터로, 그리고 산업별 최종수요 변화분열은 ΔF_p^{od} 라는 새로운 벡터로 나타내기로 한다.

이전기업들 산출증가가 가져오는 대전지역 내 산업별 소득(부가가치)효과와 산업별 고용효과는 이제 다음 식들로 계측할 수 있게 된다.7)

$$\text{산출효과} \quad : \Delta X^o = (I - A^{od})^{-1} \Delta F_p^{od} \quad (7)$$

$$\text{소득(부가가치)효과} : \Delta V^o = \hat{V}(I - A^{od})^{-1} \Delta F_p^{od} \quad (8)$$

$$\text{고용효과} \quad : \Delta L^o = \hat{L}(I - A^{od})^{-1} \Delta F_p^{od} \quad (9)$$

여기서

ΔX^o : 대전지역의 각 산업별 총산출유발효과의 열벡터

ΔV^o : 대전지역의 각 산업별 총소득(부가가치)유발효과의 열벡터

ΔL^o : 대전지역의 각 산업별 총취업유발효과의 열벡터

7) 이 식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금액변수는 모두 어떤 기준연도에 의한 불변가격자료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hat{V} : 산업별 부가가치율(= $\frac{\text{산업별 부가가치}(V_i)}{\text{산업별 총산출액}(X_i)}$)의 대각행렬

\hat{L} : 산업별 취업계수(= $\frac{\text{산업별 취업자수}(E_i)}{\text{산업별 총산출액}(X_i)}$)의 대각행렬⁸⁾

3. 산출변화가 일어나는 당해 산업에 산출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의 파급효과 계측방법⁹⁾

그런데 파급효과 계측방법을 설명하는 김에 한 가지 사항을 추가로 더 언급해두
고자 하는 사항이 존재한다. 앞의 설명은 모두 산출변화가 일어나는 산업에 산출제
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대전지역에 유치된 수도
권 기업들은 대부분 지사형태이거나 중소기업들이므로 항상 해당산업에의 기업들
진출입에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의 채택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개발계획에 의해 대규모 생산시설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이야
기가 달라진다. 예컨대 대규모 항만, 도로, 철도, 공항 건설 등은 물론이고 제철공
장이나 화학공장, 또는 자동차공장 등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생산설비를 대규모로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계획된 생산설비 규모가 미리 정해지고 이를 쉽게 변화
시킬 수 없는 경우가 된다. 말하지만 해당 산업들에 산출제약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이 개발사업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측하고자 할 때에는 앞 절
의 설명과는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계획이 추진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지역 개
발계획의 내용은 산업별 계획산출액 열벡터로 요약될 수가 있다. 여기에서 당연히
계획 비해당 산업에 대한 해당 원소의 값은 0이 되고 계획 해당 산업의 해당 원소

8) 이 변수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예측연도까지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9) 이 부분의 서술은 배진한(1981)을 주로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는 각각 그 산업의 연간 계획생산(산출) 규모가 되는 열벡터 ΔX_p 라 하자. 그러면 특정 지역 개발계획이 전국산업의 산출, 소득(부가가치), 고용에 미치는 총과급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측될 수 있다. 이하의 식들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원래의 유발계수행렬을 나타내는 상첨자 o 는 제거하여 나타내기로 한다.

$$\text{산출효과} : \Delta X = (I - A^d)^{-1} \Delta F_p^d \quad (10)$$

$$\text{소득효과} : \Delta V = \hat{V}(I - A^d)^{-1} \Delta F_p^d \quad (11)$$

$$\text{고용효과} : \Delta L = \hat{L}(I - A^d)^{-1} \Delta F_p^d \quad (12)$$

여기서

ΔX : 해당 지역의 각 산업별 총산출유발효과의 열벡터

ΔV : 해당 지역의 각 산업별 총부가가치유발효과의 열벡터

ΔL : 해당 지역의 각 산업별 총취업유발효과의 열벡터

$(I - A^d)^{-1}$: 해당지역 지역산업연관표상 비경쟁수입형(지역산) 투입계수행렬로 구한 역행렬계수행렬

이상의 변수들은 모두 산업연관표 상에 이미 나타나 있으므로 별도의 계산이 필요없지만 문제는 ΔF_p^d 에 있다. 즉 ΔX_p 를 어떻게 ΔF_p^d 로 변환할 것인가? 이 변환 과정은 결국 앞에서 살펴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I - A^d)_p^{-1} \Delta F_p^d = \Delta X_p \quad (13)$$

라 놓는다. 이때

ΔF_p^d :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의 최종수요 열벡터

ΔX_p : 개발지역의 개발계획 해당 산업별 총계획산출액의 열벡터로서 기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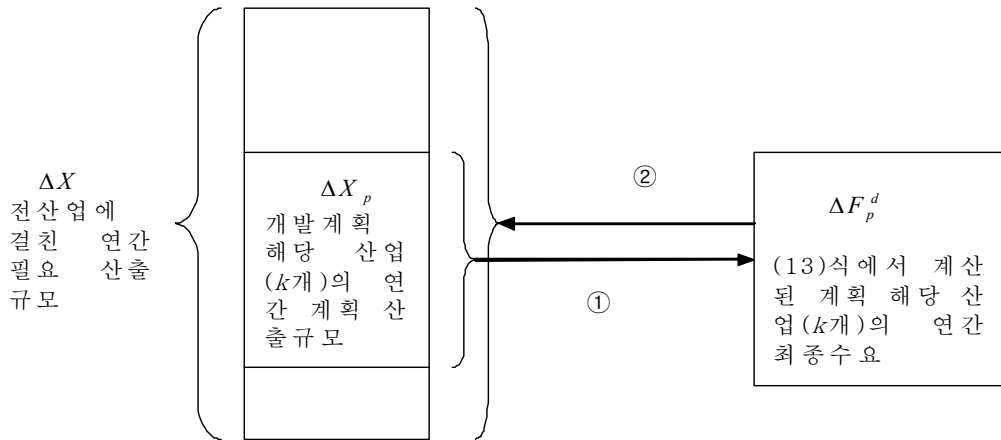
$(I - A^d)_p^{-1}$: 지역의 비경쟁수입형 투입계수행렬의 역행렬계수행렬 $(I - A^d)^{-1}$ 에서 개발계획 해당 산업의 역행렬계수들만 선택하여 만든 역행렬계수행렬이다. 즉 $(I - A^d)^{-1}$ 행렬의 계수 b_{ij} 가 60×60 의 행렬로 나타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35번과 37번 분류의 산업이 개발계획 해당 산업이라면 $(I - A^d)_p^{-1} = \begin{bmatrix} b_{35\ 35} & b_{35\ 37} \\ b_{37\ 35} & b_{37\ 37} \end{bmatrix}$ 로 정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이 $(I - A^d)_p^{-1}$ 는 기지의 행렬이 된다.

이리하여 (13)식에서 미지의 열벡터 ΔF_p^d 가 구해질 수 있게 되는데, 이 식의 해는 결국 미지수가 개발계획 해당 산업수(k 개) 만큼 되는 k 원 1차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이는 각 산업에서의 계획산출규모가 동시에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제약조건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때 ΔF_p^d 의 경제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열벡터 ΔF_p^d 의 각 원소 ΔF_i^d 는 i 산업 산출물에 대한 최종수요를 나타내는데 k 개 개발계획 해당 산업들에서 이와 같은 최종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산업간 연관구조에 따른 직·간접 유발효과로 k 개 산업들(이때는 물론 k 개 산업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산업에 걸친 연쇄적 유발효과가 창출된다)의 산출물이 각각 그 최종수요 충족분 이상으로 생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한 산업의 산출물은 당해 산업 산출물에 대한 최종수요 충족은 물론이고 여타 관련 산업들의 투입물(중간수요)로도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k 개 개발계획 해당 산업들에 국한시켜 볼 때 ΔF_p^d 의 최종수요는 ΔX_p 의 직·간접 산출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 관계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개발계획 해당 산업들의 건설계획 생산설비는 결코 ΔX_p 이상으로 생산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것이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여 이 정도의 생산설비가 완전가동되도록 하려면 최종수요 ΔF_p^d 가 동시적으로(simultaneously) 얼마라야 하는가 하는 관계로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개발계획 생산설비가 중화학공업이나 사회간접자본에 치중되어 있고 또 이러한 생산설비는 특별한 개발계획 또는 정부지원 없이는 그 확장이나 신설이 극

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면 위 접근방법은 지극히 합리적인 해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아래 <그림 4-1> 참조). 반면에 그 외의 경공업 및 농업, 기타 서비스업 등은 소자본으로 또 민간자본으로도 확장 및 신규진입이 항상 가능하므로 이들 부문에서는 유발효과의 온전한 작용이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 ΔX_p^o 와 ΔF_p^{od} 사이의 관계



주 : ① : $\Delta F_p^d = [(I - A^d)_p^{-1}]^{-1} \Delta X_p$

② : $\Delta X = (I - A^d)^{-1} \Delta F_p^d$

제2절 수도권기업 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계측결과 분석

1. 대전지역 지연산업연관표의 작성

수도권 이전 사업체들의 생산활동이 초래할 수 있는 대전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이미 언급한 대로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의 추정작업에는 한국은행이 편제하여 2008년경에 발표한 2005년 기준의 지역간 산업연관표이다. 원래는 16개 광역시도에 대하여 작성된 매우 방대한 표이지만 여기서는 대전광역시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얻기 위해 다른 지역의 수치들을 모두 “대전외 지역계” 또는 “대전외 지역 중간수요계”로 합계하여 합계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표를 단순화시켰는데 그 결과가 <표 4-2>이다. 표에서 최종수요열들은 생략하였다.

표는 15개 대분류 산업들과 대전외 지역계의 행과 열을 합하여 16×16 행렬을 이루고 있다. 이 대전지역산업연관표로 투입계수표를 만들 수 있고 앞 절에서 살펴본 방식으로 이전 사업체들의 생산활동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산출효과, 소득(부가가치)효과, 그리고 고용효과를 계측해낼 수 있다.

<표 4-2> 대전지역 지역산업연관표(생산자가격 평가표)(다음 표에 계속)

(백만원)

부문명칭	대전지역 산업별 중간수요							
	농림수산물	광산품	제조업	전력, 가스 및 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농림수산물	2,175	0	19,083	0	337	0	956	0
광산품	0	0	660	0	-218	0	12	-1
제조업	3,221	4	387,776	681	162,625	2,035	21,374	20,683
전력, 가스 및 수도	30	3	23,213	6,053	212	1,322	3,576	384
건설	67	0	3,121	351	308	2,243	1,992	661
도소매	247	0	31,308	248	9,777	4,880	14,881	3,377
음식점 및 숙박	0	0	0	0	0	0	0	0
운수	268	53	122,936	366	19,711	49,908	3,816	7,887
통신 및 방송	452	0	24,063	367	7,457	105,927	3,232	4,350
금융 및 보험	1,082	3	58,439	1,349	26,884	34,043	7,094	14,92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980	8	174,109	2,022	146,406	200,275	63,103	24,180
공공행정 및 국방	0	0	0	0	0	0	0	11,730
교육 및 보건	389	0	39,919	472	9,996	13,069	10,742	7,906
사회 및 기타 서비스	63	1	9,129	58	9,826	2,895	1,009	15,196
기타	1,944	22	139,816	1,548	41,982	95,031	7,212	26,102
대전외 지역계	23,018	137	4,421,435	36,977	1,555,467	487,774	722,584	550,288
중간투입계	33,938	231	5,455,008	50,492	1,990,770	999,401	861,585	687,664
수입투입계	1,960	1	1,875,336	7,146	150,128	60,128	81,115	35,750
비용자보수	6,034	96	1,288,371	18,899	1,083,207	708,361	280,673	458,563
영업잉여	50,216	199	835,267	39,403	294,252	878,062	174,495	265,057
고정자본소모	5,109	38	478,144	26,168	81,391	109,284	24,975	118,934
순생산세(보조금공제)	1,871	2	1,185,396	-1,532	278,932	13,393	143,865	-40,029
부가가치계	63,231	334	3,787,178	82,938	1,737,782	1,709,099	624,008	802,526
총투입액	99,129	566	11,117,522	140,576	3,878,679	2,768,628	1,566,708	1,525,941

<표 4-2> 대전지역 지역산업연관표(생산자가격 평가표)(앞의 표에서 계속)

(백만원)

부문명칭	대전지역 산업별 중간수요							대전외 지역 중간수요계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 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 서비스	기타	
농림수산물	0	0	23	296	93	9	1,882	38,825
광산물	0	0	-1	1	5	0	7	457
제조업	3,310	2,167	22,223	7,422	11,364	25,691	57,061	5,414,523
전력, 가스 및 수도	710	1,552	7,941	3,485	6,703	3,219	169	51,060
건설	3,171	583	87,081	15,274	7,336	1,989	0	87,199
도소매	5,314	449	3,539	359	2,761	2,851	6,669	1,144,727
음식점 및 숙박	0	0	0	0	0	0	201,227	317,392
운수	2,515	11,196	22,376	12,437	16,928	6,356	1,302	691,390
통신 및 방송	135,082	21,066	86,557	15,881	17,619	10,241	19,357	187,557
금융 및 보험	7,202	354,170	100,481	17,802	57,208	16,531	1,134	566,49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72,815	60,943	191,731	39,564	108,687	95,437	995	1,991,519
공공행정 및 국방	0	0	0	0	0	0	17,262	0
교육 및 보건	5,293	5,152	20,310	12,820	64,993	5,757	427	131,091
사회 및 기타 서비스	2,439	1,357	8,285	3,447	9,920	3,243	55,339	73,780
기타	30,150	36,914	303,600	195,699	168,276	91,354	0	0
대전외 지역계	305,662	266,665	888,070	166,833	713,955	354,326	720,724	924,553,735
중간투입계	573,662	762,214	1,742,215	491,321	1,185,850	617,005	1,083,553	935,249,752
수입투입계	42,660	35,214	89,761	49,081	84,956	19,767	68,949	262,439,170
비용자보수	239,512	529,301	2,157,841	1,284,894	2,335,174	344,408	0	386,383,066
영업잉여	136,786	606,946	1,546,349	0	325,272	151,370	0	247,176,309
고정자본소모	188,667	69,191	692,067	326,382	243,823	61,102	0	114,796,324
순생산세(보조금공제)	53,745	106,385	436,705	204	7,273	98,964	0	82,876,997
부가가치계	618,710	1,311,823	4,832,962	1,611,481	2,911,541	655,843	0	831,232,697
총투입액	1,235,032	2,109,251	6,664,938	2,151,883	4,182,347	1,292,614	1,152,501	2,028,921,619

자료 : 한국은행, ECOS의 산업연관표 중 2005년 지역표에서 작성함.

2. 수도권 기업유치의 산출효과, 소득효과 및 고용효과

<표 4-2>에서 이제 앞 절에서 정의한 ΔX_p^o 와 ΔF_p^{od} 를 구할 수 있는데 우선 ΔX_p^o 는 <표 4-3>에서 유치기업 산출효과(B)열에 해당한다. ΔF_p^{od} 벡터는 행으로 표현할 때 <표 4-4>로 나타낼 수 있다.

<표 4-3> 이전 사업체의 생산활동에 의해 유발된 직·간접 유발효과

(2010년 가격기준, 백만원)

구분	각 산업별 직·간접 파급효과									전산업 직·간접 유발효과 합계(A)	유치기업 산출효과(B)	유발효과(A-B)
	제조업	건설	도소매	운수	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사업서비스	공공행정·국방	사회·기타서비스			
농림수산물	522	11	1	0	8	4	7	2	0	555	0	555
광산품	17	-3	0	0	0	0	0	0	0	15	0	15
제조업	290,465	2,445	40	32	679	277	493	58	36	294,525	290,465	4,060
전력·가스·수도	656	14	6	1	81	74	86	11	4	932	0	932
건설	172	52,242	16	2	374	65	841	43	4	53,758	52,242	1,516
도소매	997	172	8,048	5	532	54	78	7	4	9,897	8,048	1,849
음식·숙박	761	136	57	7	544	301	529	93	18	2,447	0	2,447
운수	3,374	325	152	1,834	298	491	250	37	8	6,768	1,834	4,935
통신·방송	979	186	364	8	108,519	1,054	1,017	61	16	112,205	108,519	3,686
금융·보험	2,119	520	138	24	944	86,592	1,202	64	23	91,626	86,592	5,034
부동산·사업서비스	5,289	2,182	639	36	6,813	2,717	63,921	127	105	81,829	63,921	17,908
공공행정·국방	88	14	6	15	48	29	47	5,689	2	5,938	5,689	249
교육·보건	1,137	162	44	10	514	237	219	37	7	2,368	0	2,368
사회·기타서비스	496	179	28	20	380	150	234	36	1,313	2,837	1,313	1,525
기타	4,159	742	325	37	3,068	1,705	3,013	532	100	13,680	0	13,680
대전지역 합계	311,233	59,327	9,865	2,031	122,803	93,751	71,939	6,796	1,637	679,381	618,624	60,757
대전외 지역계	223,734	42,408	3,555	1,324	56,759	24,255	21,709	1,710	868	376,321	0	376,321
전국 합계	534,967	101,734	13,420	3,355	179,562	118,006	93,647	8,506	2,506	1,055,702	618,624	437,078

<표 4-3>에 따르면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치 사업체들이 생산해내는 산출액은 2010년 기준으로 6,186억원에 이르고 이 산출활동이 파급시키는 직·간접 산출액

합계는 표 A열의 합계인 1조557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산출은 대전지역 내에서 6,794억원(64.4%), 대전외 지역에서 3,763억원(35.6%)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유치 사업체들의 생산활동에 의해 유발되는 순효과는 표의 마지막열(A-B)로 계산되는 총유발산출액 4,371억원이고 이 중 대전지역에 귀착되는 유발효과는 608억원(13.9%), 대전외 지역 귀착 유발효과는 3,763억원(86.1%)에 이른다.

<표 4-4> ΔX_p^o 로부터 추정된 ΔF_p^{od} 벡터

(백만원)

산 업	제조업	건설	도소매	운수	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사업서비스	공공행정·국방	사회·기타서비스	합계
최종수요	279,411	52,205	8,027	1,823	96,465	71,982	61,868	5,681	1,304	578,766

<표 4-5> 이전 사업체 생산활동의 대전지역 내 소득(부가가치)효과와 고용효과

구 분	고용창출(명)			부가가치(백만원)		
	총효과	직접효과	유발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유발효과
농림수산물	56 (1.4)	0	56	289 (0.1)	0	289
광산품	0 (0.0)	0	0	6 (0.0)	0	5
제조업	742 (17.8)	732	10	63,058 (26.1)	62,189	869
전력·가스·수도	1 (0.0)	0	1	216 (0.1)	0	216
건설	309 (7.4)	300	9	16,708 (6.9)	16,237	471
도소매	128 (3.1)	104	24	4,355 (1.8)	3,541	813
음식점·숙박	81 (1.9)	0	81	1,002 (0.4)	0	1,002
운수	63 (1.5)	17	46	1,763 (0.7)	477	1,285
통신·방송	701 (16.8)	678	23	48,001 (19.8)	46,424	1,577
금융·보험	743 (17.8)	702	41	50,843 (21.0)	48,050	2,793
부동산·사업서비스	924 (22.2)	722	202	41,823 (17.3)	32,670	9,153
공공행정·국방	45 (1.1)	43	2	3,991 (1.6)	3,824	167
교육·보건	34 (0.8)	0	34	1,571 (0.6)	0	1,571
사회·기타서비스	52 (1.2)	22	30	1,443 (0.6)	665	778
기타	284 (6.8)	0	284	6,982 (2.9)	0	6,982
대전지역 합계	4,163 (100.0)	3,320	843	242,051 (100.0)	214,078	27,973

결국 계산에 따른다면 유치 사업체들의 대전지역 생산유발효과는 그 사업체들이 직접 생산해내는 산출액 6,186억원과 이로부터 유발되는 산출액 중 대전지역 귀착분 608억원의 합계 6,794억원 정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유발효과의 86.1%가 대전지역외로 이출(移出)되기 때문이다.

<표 4-5>는 이전 사업체들의 생산활동으로 유발되어 대전지역 내에 귀착되는 소득효과와 일자리창출(고용)효과의 크기를 계측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 따르면 2010년 연간 기준으로 2,421억원의 직·간접소득효과가 발생하고 이중 280억원 정도는 간접적으로 유발된 소득효과로 나타난다. 유발된 일자리창출효과도 843개에 이르고 있다.

계측결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대전광역시 산업구조의 자기완결성이 크게 미흡하여 유발되는 산출효과의 약 86% 정도가 지역외로 이출된다는 점이다.

제 5 장

기업 유치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제1절 무엇이 필요한가?

제2절 기업유치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제 5 장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제1절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까지 우리는 수도권으로부터 유치된 기업들의 특성과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분석결과들이 대전지역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정책의 모색에 주는 여러 가지 정책 함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5-1>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정책 평가

평가 항목	전혀 효과성 없음	효과성 없음	보통	효과적	매우 효과적	합계
타겟기업 선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집중 홍보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홍보활동 전개	3.2	16.8	65.3	12.6	2.1	100.0
수도권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를 통한 투자환경 집중 홍보, 타겟기업 발굴	3.2	19.1	64.9	12.8	0.0	100.0
대덕특구 2단계 산업용지 활용 등 산업단지 안정적 공급을 통한 기업유치 활동 전개	4.3	10.8	61.3	21.5	2.2	100.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적극 활용한 수도권기업 유치, 관내 기업 신·증설 유도	3.2	13.8	61.7	17.0	4.3	100.0
관내기업 및 유치기업 협력업체 타겟팅 유치 활동	3.2	12.9	65.6	18.3	0.0	100.0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도 제고 및 기업 물류비용 절감제도 홍보 등을 통한 유치기업 지원활동 강화	4.3	10.8	61.3	22.6	1.1	100.0
유치기업 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및 관심과 지원으로 대전의 이미지 제고	6.4	16.0	57.4	20.2	0.0	100.0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입지·투자·교육훈련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	2.1	16.8	58.9	21.1	1.1	100.0
콜센터 활성화 추진을 통한 콜센터 메카 지속적 유지	4.2	21.1	58.9	14.7	1.1	100.0

이전 사업체들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우리는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정책을 평가하는 견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5-1>이다.

표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 기업유치정책에 대해서 “대덕특구 2단계 산업용지 활용 등 산업단지 안정적 공급을 통한 기업유치 활동 전개”,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도 제고 및 기업 물류비용 절감제도 홍보 등을 통한 유치기업 지원활동 강화”,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입지·투자·교육훈련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 “유치기업 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및 관심과 지원으로 대전의 이미지 제고” 등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2> 향후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전광역시의 기업유치정책 필요성 평가

평가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지방세, 준조세 등 조세부담 감면	0.0	4.0	27.3	54.5	14.1	100.0
금융기관 대출 조건 완화 등 금융지원 강화	0.0	6.1	32.3	42.4	19.2	100.0
토지가격 등 용지가격 부담 완화 확대	0.0	7.2	30.9	44.3	17.5	100.0
경영컨설팅 등 경영지원 서비스의 강화	2.0	8.1	46.5	34.3	9.1	100.0
청년인턴 등 인력채용 지원	1.0	6.1	36.4	39.4	17.2	100.0
외국인 인력 등 인력채용 지원	3.0	17.0	60.0	13.0	7.0	100.0
대전 전략산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성장잠재력 향상	0.0	2.0	39.2	45.1	13.7	100.0
벤처기업 육성정책 등 중소기업 성장환경 장점 홍보	0.0	5.9	34.7	42.6	16.8	100.0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발전 등 기업환경 개선	0.0	4.0	29.7	44.6	21.8	100.0
과학벨트조성 등 미래 지식선도산업 성장잠재력 확대	0.0	4.0	29.7	44.6	21.8	100.0

그리하여 <표 5-2>에서 보는 대로 향후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기업유치정책으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발전 등 기업환경 개선”,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미래 지식선도산업 성장잠재력 확대”, “금융기관 대출 조건 완화 등 금융지원 강화”, “토지가격 등 용지가격 부담 완화 확대”, “청년인턴 등 인력채용 지원”, “벤처기업 육성정책 등 중소기업 성장환경 장점 홍보” 등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대전지역경제의 산업집적 촉진과 클러스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특구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설립, 그리고 연구개발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등과 연관되는 대전지역 산업적 특성과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교통과 물류, 그리고 정보통신 상의 입지적 특성에 적합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두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해볼 수 있다. 첫째는 효과적인 기업유치정책의 수립과 실천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환경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이다.

제2절 기업유치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 기업유치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체제의 구축

우리는 앞에서 산업집적과 산업클러스터의 차이가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협력적 네트워크의 존재여부라는 점을 언급하였지만 효과적인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독자적 지역발전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클러스터 의사결정체제(governance system)를 형성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산업계 경영자 및 경영자조직, 교육기관 책임자와 교육전문가, 연구기관의 책임자와 관련 전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담당자들 사이에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역할은 ①관련 전문가들 사이 긴밀한 유기적 상호협력연계체제 및 네트워크의 구축·유지, ②필요한 지역특성화 유도, 인력수급 개선, 기술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역산업 현안들에 대한 의사결정 및 통합·조정, ③공공정책적 지원, ④지역의 관련 참가인력들에게 리더십과 전문적 역량 배양 기회 제공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Eberts(2008)는 성공적인 지역네트워크 파트너십의 전제조건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조(structure)로서 정부 및 비정부조직 간에 분권화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 거버넌스(governance)체제로는 ①파트너십은 서비스 수요자에 집중하고 공통 비전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②객관적인 조사연구, 파트너 기관들의 참여와 지원 확보,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기초한 효율적인 문제 해결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③참여자들 사이 경험과 성과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고, ④보상 및 처벌 관련 인센티브제도 등을 포함한 파트너십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파트너십의 문화(culture)로서 ①파트너십 구성원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②유능한 직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③구성원들의 협력을 확보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인력, 자원 등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유치 전략 수립 필요

앞장들의 분석에서 기업유치전략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들은 대체로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지역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 홍보함으로써 일정규모에 이르기까지 산업집적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이전기업들의 다수가 대전광역시의 연구개발기능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집적에 유인되었으며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이점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대전지역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종과 특화산업에 맞추는 유치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시사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이전사업체들은 유성구지역을 매우 선호하며 유성구에 이전한 사업체들의 경영성과도 양호하였다고 보면 유성구지역에 산업용지를 충분히 마련하는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아울러서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하고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비제조업(예컨대 아웃소싱을 통한 외부자원의 활용, 관련 기능의 집적 및 네트워크가 더욱 중시되는 첨단 서비스업) 창업수요에 대응하여 산업단지 내에 이 부분의 비중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셋째, 유치기업의 규모를 소기업과 중기업에 초점을 두고 산업용지의 공급에도 이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전기업의 실태를 분석하면서 우리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경우 영세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양호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한 바 있다. 대전광역시의 기업유치전략이 아파트형공장 용지,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산업용지 공급을 활용하면서 녹색성장산업, 전략산업, 선도산업, 특화업종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나노융합컨셉 등에 부합하는 미래 신성장산업 소속 기업들 유치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것은 매우 적절한 방향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여기에 예컨대 용지공급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아파트형 공장용지외에 기업규모에 적합한 저렴한 임대용지의 공급방안도 함께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최근 지역경제에서 소득증가와 일자리 창출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

오르고 있는 산업클러스터의 특성이 산업집적과 효과적인 네트워크의 융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지역내 네트워크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거버넌스체제의 구축도 기업유치, 창업, 기업가정신의 고양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대전지역의 특성을 살려 연구개발분위기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내 과학 활동 활성화가 신규 기업창업의 지속적 흐름 유지에 매우 필요하며 기업창업의 가능성은 이러한 학술조직과 민간조직 사이의 협력과 같은 과학적·기술적 조직요소들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Autant-Bernard, Mangematin, and Massard(2006)의 연구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표 5-3> 이전기업들의 채용희망 종업원수

(명, %)

구 분	채용희망 인력 학력			
	대졸 이상	전문대졸	고졸	합계
희망학력 제시의 경우만 집계한 경우	340 (67.2)	37 (7.3)	129 (25.5)	506 (100.0)
희망학력 제시가 없는 경우를 '학력무관(고졸인력으로 해석 가능)'으로 해석하여 집계한 경우	340 (59.4)	37 (6.5)	195 (34.1)	572 (100.0)

여섯째, 산업용지의 적절한 공급외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 적합한 산업인력의 공급이다. 인력요소는 기업환경 면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기초투입환경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치기업을 포함하여 산업클러스터에 지역의 우수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으로 빈일자리신고제도(compulsory vacancy notification)¹⁰⁾, 실시간 인재

10) 초기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의무적빈일자리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특구 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에서 적절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빈 일자리로 남아있는 일자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기적으로(분기당 1회 정도) 신고하게 하여 이를 교육훈련기관 또는 노동시장 운행지표로 활용하는 제안이다. 의무적빈일자리신고제도가 또 하나의 기업규제로 인식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에는

정보센터 설치 및 활용, 성공취업상비군프로그램 운영 등 인력수급 개선을 위한 인 프라구축 노력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급제, <표 5-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전기업들의 향후 채용희망 근로자들의 학력별 구성은 고졸인력이 25.5%~34.1%에 이르고 있다. 이전 사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대기업규모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졸인력의 충분한 확보도 문제이지만 적절한 고졸인력의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표 5-4>에 따르면 최근 까지도 대전광역시에서 진학하지 않고 고졸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은 대략 2,700여명 정도에 이른다. 그렇다면 고졸 청년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인력개발 프로그램의 운영이 매우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표 5-4> 최근 대전지역 청년층 학력별 신규인력 공급 구성비 추이

(% , 명)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합계
2004	10.3	31.8	42.9	15.0	100.0 (25,553)
2005	9.9	33.6	42.1	14.4	100.0 (26,421)
2006	9.3	33.2	43.5	14.0	100.0 (26,570)
2007	8.1	32.5	44.9	14.5	100.0 (26,146)
2008	8.2	31.0	45.5	15.4	100.0 (26,030)
2009	11.7	29.6	43.4	15.4	100.0 (27,178)

자료 : 권우현 외 6인(2010)에서 재인용.

여덟째, 지역특수적 고급인적자원의 개발수요에 부응하고 유입 고급인력의 정착성을 높이는 인적자원개발 친화적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①수준 높은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의료, 쇼핑, 문화, 그리고 사회복지인프라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고, ②중소기업 근로자라 할지라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역 또는

표본기업을 선정하여 필요인력의 상세한 내역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한 가지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들 지역의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고유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전략의 실천, '기술문화축제'(가칭)의 개최 등을 통해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치 사업체들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그 생산활동이 대전지역경제에 유발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계측·분석하여 왔다. 이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정리해보기로 하자.

대전광역시 사업체들은 빠른 증가속도와 상대적 대형화추세, 그리고 지식기반서비스업들에 특화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지역의 투자환경 또는 기업환경은 기존 연구들에서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입지계수가 1보다 높고 성장속도가 전국평균보다 높은 고성장·고집적 산업들은 대전지역의 산업경쟁력 수준을 나타내는 산업들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들 산업에는 연구개발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들과 음료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 지식기반제조업들이 포함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전 사업체 실태분석에서 우리는 수도권 사업체들의 이전이 유성구 등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또한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기존의 특화도가 높은 산업들에 집중됨에 따라 대전지역의 특화산업들의 산업집적을 촉진하고 사업체 대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 사업체들의 대부분이 이전 후 종업원수가 유지 또는 증가하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이루어진 이전 사업체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첫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제3·4공단이 위치하는 유성구에 이전한 사업체의 경우 종업원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된다는 점, 둘째, 이전연륜이 종업원수 증가에 음의 효과를 유의하게 미친다는 점, 셋째, 기업규모면에서 소기업과 중기업의 경우 종업원수 증

가가 유의하게 발생한다는 점, 넷째, 업종으로 볼 때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체들의 경우는 종업원수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도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본 연구가 독자로 개발한 방법에 의거 이전 사업체들의 생산활동이 유발하는 대전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계측을 시도하였는데 그 크기는 당해 사업체들이 직접 생산해내는 산출액 6,186억원과 이로부터 유발되는 산출액 중 대전지역 귀착분 608억원의 합계 6,794억원 정도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된 것은 유발효과의 86.1%가 대전지역외로 이출(移出)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연간 기준으로 2,421억원의 직·간접 소득효과가 발생하고 이중 280억원 정도는 간접적으로 유발된 소득효과였으며 일자리창출은 843개 유발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대전광역시의 효과적인 기업유치정책을 위해서 몇 가지 정책제안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대전지역의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독자적 지역발전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클러스터 의사결정체제를 형성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첫째 대전광역시의 연구개발기능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집적, 그리고 지리적 이점 등 지역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 홍보함으로써 일정규모에 이르기까지 산업집적을 이끌어내는 노력, 둘째, 유성구지역에 다양한 맞춤형 산업용지를 충분히 마련하는 노력, 셋째, 유치기업의 규모를 소기업과 중기업에 초점을 두고 산업용지의 공급에도 이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노력, 넷째, 산업집적과 효과적인 네트워크가 적절하게 융합된 산업클러스터의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지역내 네트워크의 구축 노력, 다섯째, 대전지역의 특성을 살려 연구개발분위기를 더욱 강화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여섯째, 유치기업을 포함하여 산업클러스터에 지역의 우수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력수급 개선을 위한 인프라구축 노력, 일곱째, 고졸 청년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인력개발 프로그램의 운영, 여덟째, 수준 높은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의료, 쇼핑, 문화, 그리고 사회복지인프라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노력 등을 제안하였다.

대전광역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소득 증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

한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방안으로 기업유치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각 지역들 사이에 기업유치를 위한 지나친 보조금 지급경쟁은 국민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비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뿐일 수 있으므로 그 보다는 지역의 입지적 특성에 기초한 산업집적과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보다 우월한 방안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클러스터 형성과 기업환경 개선 또는 기업유치 영향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 자체적으로 수준 높은 연구 및 기술개발 역량 확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 등을 밀접하게 연결하고 사업화하는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 도시지역의 지속적 발전과 성장의 길은 경쟁력 있는 제조업의 확보와 아울러 단순한 서비스산업화보다는 특성화된 산업들과 밀착·연관되는 지식서비스 산업화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산업들의 집적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역동적인 기업가정신의 발휘와 창업이 지역클러스터 형성에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초투자환경(금융 이용가능성, 노동력의 질과 노사관계,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가격과 토지 이용가능성 등)과 인프라환경(항만, 공항, 물류인프라, 의료 및 교육 인력, 주민의 기업에 대한 태도, 준조세부담, 클러스터 발전 정도, 소비자 물가 등)의 개선과 아울러 지방정부의 정책과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헌신적인 행정서비스 등 기업성장과 투자에 우호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우현·모성은·박성익·홍성우·배진한·황규선·박세정, 『광역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2009~2018)』, 한국고용정보원, 2010.
- 김인중·김석중, 『강원도의 초경량소재부품기업 유치방안』, 연구보고 10-32, 강원발전연구원, 2010.
- 대전광역시, “2011년도 기업유치 기본계획,” 2011.
- 박재곤, “지역투자 결정요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전략,” *Issue Paper* 2010-264, 산업연구원, 2010. 12.
- 박재곤·이원빈, 『기업의 지방투자 실태와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05.
- 배진한, “지역개발계획 실행의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기법에 관한 일 연구,” 『경상논집』, 제3권 제2호,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1981. 12.
- 이병기,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연구 05-12, 한국경제연구원, 2005.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07.
- Autant-Bernard, C., V. Mangematin, and N. Massard, “Creation of Biotech SMEs in France”, *Small Business Economics*, vol.26, pp.173~187, 2006.
- Blume, Lorenz, “Local Economic Policies as Determinants of the Local Business Climate: Empirical Results from a Cross-section Analysis among East German Municipalities,” *Regional Studies*, 40(4), 2006, 321~333.
- Clercq, D., H.J. Harry, and H. Crijn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Firm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24, pp.409~419, 2005.
- Eberts, R.W., “What a Workforce Investment Board can (and cannot) do to Co-ordinate and Enhance the Impact of Public Policy,”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hancing the Local Governance of Employment and Skills in South Korea*, 노동부와 OECD 공동개최, 서울, 2008. 3.
- Fukugawa, N., “Determining Factors in Innovation of Small Firm Networks: A

- case of Cross Industry Groups in Japan”, *Small Business Economics*, vol.27, pp.181~193, 2006.
- Kawai, H. and S. Urata, “Entr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Economic Dynamism in Japan,” *Small Business Economics*, vol.18, pp.41~51, 2002.
- Porter, M.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Harvard Business Review*, Mar.-Apr. 1990.
- ,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Nov.-Dec. 1998.
- Prevezer, M., “Ingredients in the Early Development of the U.S. Biotechnology Industry”, *Small Business Economics*, vol.17, pp.17~29, 2001.
- Rocha, H.O.,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The Role of Cluster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23, pp.363~400, 2004.
- Rocha, H.O. and R. Sternberg, “Entrepreneurship: The Role of Clusters -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Empirical Evidence from Germany -”, *Small Business Economics*, vol.24, pp.267~292, 2005.
- Sheard, N., “Regional policy in a multiregional setting: when the poorest are hurt by subsidies”, *Working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Stockholm University, March 2011.
- Spencer, G.M., T. Vinodrai, M.S. Gertler, and D.A. Wolfe, “Do Clusters Make a Difference? Defining and Assessing their Economic Performance”, *Regional Studies*, Vol. 44.6, pp. 697 - 715, July 2010.
- Yamawaki, H., “The Evolution and Structure of Industrial Clusters in Japan,” *Small Business Economics*, vol.18, pp.121~140, 2002.

부 록

설문지

대전광역시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역경제효과 조사

ID			
----	--	--	--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의 중장기 발전정책 연구 및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전문정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은 **‘수도권 이전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분석’**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의 결과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다양한 성과들과 문제점들을 발굴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시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실증적인 전략방안들을 제시하고 지역경제정책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정책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 사업체에서 응답해주신 자료는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리오니 솔직하게 빠짐없이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조사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협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대전발전연구원장 이 창 기

조사기관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 국제통상투자과

연락처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배진한 (☎ 821-5529)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기희 (☎ 530-3519, FAX 530-3528)

응답자 정보	이름		면접원 정보	이름	
	연락처	(Tel : Fax : e-mail : @)		연락처	
	소속부서	※ 명함 수집 필요			

사업체 일반(사업장 단위) 현황 및 특성

1. 사업체 일반(사업장 단위) 현황 및 특성

사업체명		소재지 (주소)	현재소재지 (우편번호: -)		
			과거(이전 이전)소재지		
설립연도	년	※ 산업별 (표준산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별 코드 기입 : 5자리)		
대전이전 연도	년				
주요 생산품명 또는 영업종목		①	②	③	(생산하는 최종수요 생산품이나 영업종목을 직접 기재)

2. 매출액 실적 및 장래 계획 또는 전망

구 분	경영실적 변화	2010년	향후 계획 또는 전망 (2010년 가격기준 매년 예상증가율)		
	이전 후 증감(연평균)	실 적 현 황	2011	2012	2013
매출액	백만원(증가, 감소)	백만원	%	%	%
수출액	천달러(증가, 감소)	천달러	%	%	%
종업원수 (연말기준)	명(증가, 감소)	명	%	%	%

※ 수출액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만 응답해 주십시오.

2-1.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2010년도 귀사에서 생산한 제품의 전체판
매액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 정도입니까? (_____%)

3. 귀사는 위탁대기업의 협력업체입니까?

① 예 () ⇨ 3-1과 3-2로 ② 아니오()

3-1. 만약 귀사가 협력업체라면 위탁대기업에게 납품하는 제품이 전체 매출액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_____%)

3-2. 귀사는 최종재를 생산하는 위탁대기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디에 해당
됩니다?

- ① 1차 협력업체 ② 2차 협력업체 ③ 3차 이하 협력업체

인력 및 근무여건

1. 귀사의 현재 총인력과 구성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대전지역으로부터
의 충원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직군	인력 (명)	구성비 (%)	대전지역충원율 (%)
연구개발직			
사무관리직			
영업직			
기술직(준전문직)			
생산직(기능직, 단순노무)			
합 계		100%	

2. 향후 1년간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의 양과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직군	총원희망인원 (명)	학력수준 여부 (명)
연구개발직		대졸이상() 전문대졸() 고졸()
사무관리직		대졸이상() 전문대졸() 고졸()
영업직		대졸이상() 전문대졸() 고졸()
기술직		대졸이상() 전문대졸() 고졸()
생산직(기능직, 단순노무직)		대졸이상() 전문대졸() 고졸()
합 계		대졸이상() 전문대졸() 고졸()

3. 귀사에 입사한 1년차 직원의 평균연봉수준이 동종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은 편 ② 낮은 편 ③ 비슷한 수준 ④ 높은 편
⑤ 매우 높은 편

4. 주당 평균 근로시간 : () 시간

5. 귀사의 근무여건이 동종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불리하다 ② 불리하다 ③ 대체로 비슷하다
 ④ 유리하다 ⑤ 아주 유리하다

이전에 대한 기업경영 평가 및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정책 평가

1. 대전지역으로 이전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관련기업 많아 경영활동 편리 ② 대기업 하청 ③ 세제감면, 행정지원 등 지원제도 우수 ④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성과물 활용 등 기술개발기반 우수 ⑤ 산업단지의 우수한 기업환경 ⑥ 산·학·연·관 협력기반 우수 ⑦ 생산물의 전국 판매망 조달비용 절감 ⑧ 인건비 저렴 ⑨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환경 우수 ⑩ 우수인력 풍부 ⑪ 토지가격 등 용지가격 저렴 ⑫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및 성장 환경 유리 ⑬ 기타 (_____)

2. 대전지역으로 이전 후의 평가

대전지역으로 이전해 오기 전과의 비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출액 증가가 확대되는 추세					
수출실적이 늘어나는 추세(수출하는 기업에 국한)					
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기가 더 용이해지는 추세					
준조세 등을 포함한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추세					
직원수가 증가하는 추세					
직원채용이 더 쉬워지는 추세					
임금 등 인건비 부담이 감소하는 추세					

3.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정책 평가

평가 항목	전혀 효과성 없음	효과성 없음	보통	효과적	매우 효과적
타겟기업 선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집중 홍보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홍보활동 전개					
수도권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를 통한 투자환경 집중 홍보, 타겟기업 발굴					
대덕특구 2단계 산업용지 활용 등 산업단지 안정적 공급을 통한 기업유치 활동 전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적극 활용한 수도권기업 유치 및 관내기업 신·증설 유도					
관내기업 및 유치기업 협력업체 타겟팅 유치 활동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도 제고 및 기업물류비용 절감제도 홍보 등을 통한 유치기업 지원활동 강화					
유치기업 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및 관심과 지원으로 대전의 이미지 제고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입지·투자·교육 훈련 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					
콜센터 활성화 추진을 통한 콜센터 메카 지속적 유지					

4. 향후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전광역시의 기업유치정책 필요성 평가

평가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방세, 준조세 등 조세부담 감면					
금융기관 대출 조건 완화 등 금융지원 강화					
토지가격 등 용지가격 부담 완화 확대					
경영컨설팅 등 경영지원 서비스의 강화					
청년인턴 등 인력채용 지원					
외국인 인력 등 인력채용 지원					
대전 전략산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성장 잠재력 향상					
벤처기업 육성정책 등 중소기업 성장환 경 장점 홍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발전 등 기업환경 개선					
과학벨트조성 등 미래 지식선도산업 성 장잠재력 확대					

<p>기업이전 촉진 관련 건의 내용이나 기타 애로사항을 간략히 기술하여 주십시오</p>

☞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정책연구보고서 2011-34

수도권 이전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분석

발행인 이 창 기
발행일 2011년 11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160-20)
전화: 042-530-3519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처 : 영창당인쇄사 TEL 042-626-7888 FAX 042-626-988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